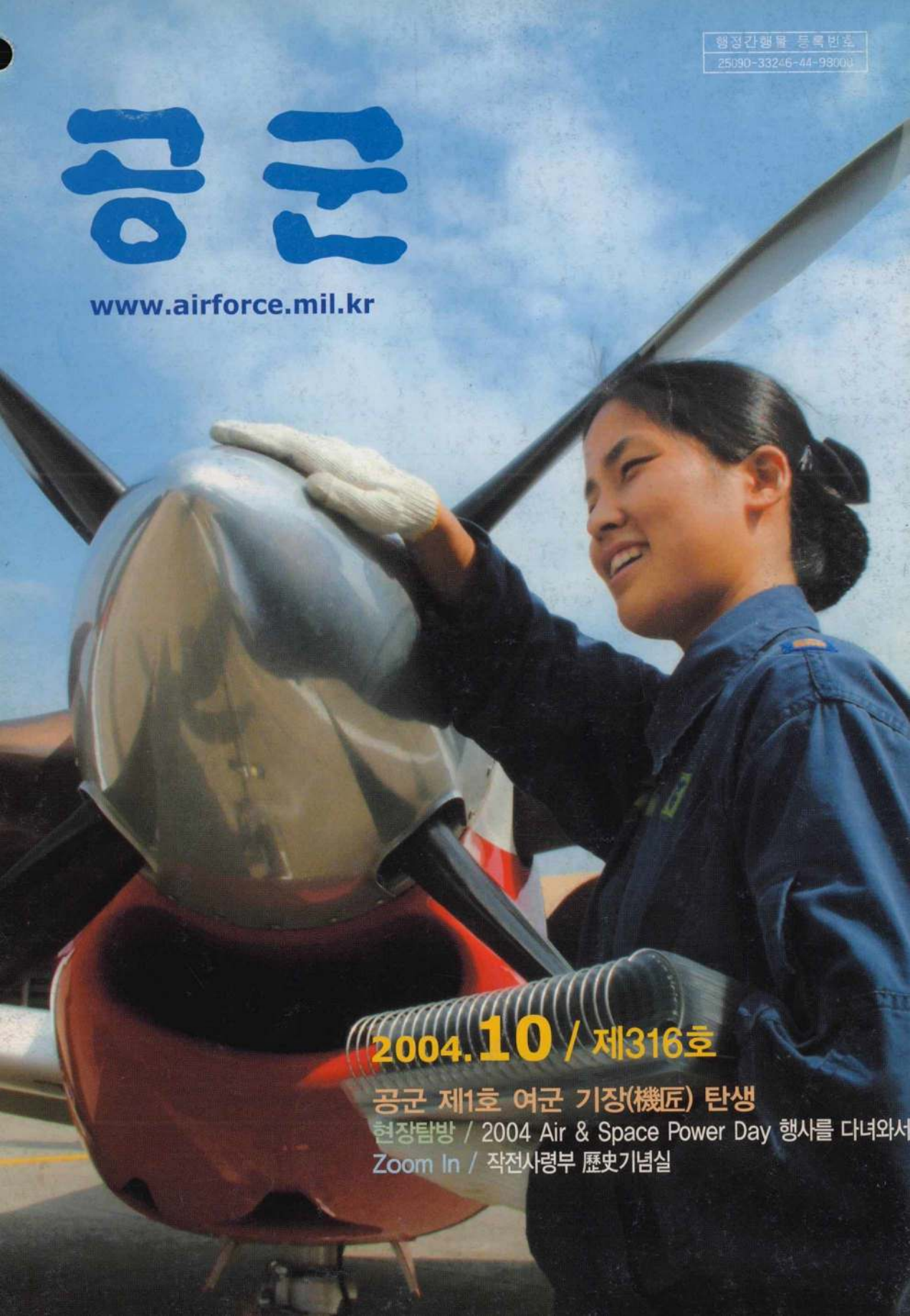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25090-33246-44-98000

공군

www.airforce.mil.kr



2004. 10 / 제316호

공군 제1호 여군 기장(機匠) 탄생

현장탐방 / 2004 Air & Space Power Day 행사를 다녀와서

Zoom In / 작전사령부 歷史기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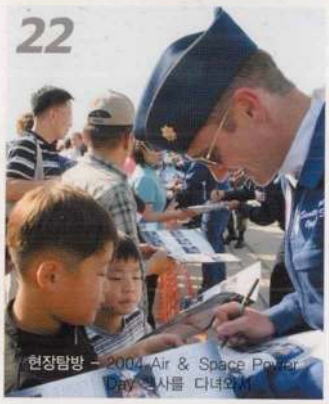
공군

제316호 | 2004.10

Contents

공군 제1호 여군 기장(機匠) 박선미 하사

공군소식 – 해발 1,100미터에서의 킥오프



현장탐방 – 2004 Air & Space Power Day 행사를 다녀와서

4 참모총장 스케치

6 공군은 지금

공군창설 55주년 특집/공군의 創軍前史

10 독립운동 비행사 양성과 『공군』 창설의 꿈

공군소식 1

13 해발 1,100미터에서의 킥오프

공군소식 2

14 공군 제1호 여군 기장(機匠) 탄생

이건 이렇습니다

16 공중충돌 경고장치 ACAS에 관한 오해

특별기고

18 "누구 목에 ACAS를 달아야 하는가"

만나고 싶었습니다

2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박종권 이사장(공사 9기)

현장탐방

22 2004 Air & Space Power Day 행사를 다녀와서

Zoom In

25 작전사령부 歷史기념실

화제의 공군인

28 23년간 자전거로 출퇴근한 박만식 군무원

세계의 우주력

30 세계가 주목하는 우주강국, 중국 I

특별기고

32 About E-X : 알아두면 좋을 다섯 가지

테마가 있는 나들이

34 백야 김좌진 장군, 만해 한용운 선생을 찾아서

공군지 독자 여러분의 주소 변경시에는 변경된 주소를 02)506-6235로 알려주십시오. 본지의 내용은 공군인터넷 및 인트라넷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 이야기
빈민굴의 선생님 38

법률상식
공(公)기관 · 단체 사이의 법률문제 40

건강 365
감기와 독감 42

동아리 마당
공군 최초의 뮤지컬 공연팀 『쉘위 댄스』 결성! 44

제19회 공군창작전 부문별 대상 수상작 46

10월의 공군 약사 48

생활 속의 실천
태극기 게양법,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49

문화마당
10월에 가 볼 만한 문화행사 50

마음으로 읽는 글
행동하라, 그러면 즐거울 것이다 52

영화 이야기
거미숲 54

책으로 읽는 세상
다빈치 코드 56

기상전망대 57
독자의 소리 58
다른 그림 찾기 61
보라매 단상 62
알립니다 63

생활 속의 실천 -
태극기 게양법,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발행일자/2004년 10월 1일(통권 제316호), 발행인/공군참모총장, 발행처/공군본부 정훈공보실 02-506-6233, 042-552-6233, 편집·디자인·인쇄/공군교재창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참모총장 스케치

▶▶▶ 이한호 참모총장, 터키 · 태국 순방

태국 공군사령관인 콩삭 대장과 군사교류 방안을 논의한 이한호 공군참모총장

이한호 참모총장은 지난 9월 4일부터 11일까지 7박 8일의 일정으로 터키와 태국을 각각 방문했다. 이번 순방 동안 이 총장은 터키의 외즈콕(Hilmi Ozkok, 육군대장) 총사령관과 프르트나(Halil Ibrahim Firtina, 공군대장) 공군사령관, 그리고 태국의 체타(Chetta Thanajaro, 육군대장) 국방부장관과 콩삭(Kongsak Vantana, 공군대장) 공군사령관 등 양국의 군 수뇌부를 예방하여 군사교류와 우호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총장은 방위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두 나라의 최고 군지휘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KT-1 기본훈련기와 A/T-50 고등훈련기 등 항공무기 수출 및 항공기 정비 기술 교류 등을 논의하고, 내년도 개최되는 '2005 서울에어쇼' 홍보를 실시했다.

또한 6 · 25 당시 UN군의 일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병력을 지원한 터키에서는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참배하였고, 한 · 터키 군사교류 증진의 공로로 터키의 최고 훈장인 '리야카트 니싼스(Liyakat Nisans)'를 받았다.

터키 최고 훈장을 받은 이한호 공군참모총장과 프르트나 터키 공군사령관

▶▶▶ 『항공우주법 세미나』 주관

개회사를 하고 있는 이한호 공군참모총장

이한호 참모총장은 9월 14일 공군회관에서 "군 항공 · 우주법의 과제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주관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유재건 국방위원장과 홍순길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채연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항공우주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등 항공관련 기관의 국실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공군은 금번 세미나에서 도출된 항공법과 우주법 개정 내용을 향후 법령 개정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항공 우주군을 향한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04-2차 고등비행 수료식 참석

이한호 참모총장은 9월 21일 '04-2차 고등비행 수료식에 참석, 수료생들의 그간 노고를 치하하고 정예 조종사로서의 무운과 장도를 기원했다. 이날 수료식에서 이한호 참모총장은 훈시를 통해 "장기간의 고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웅비의 나래를 펴게 될 신임 조종사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낸다"고 치하하고 "현대전의 핵심전력으로 미래 우리 공군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유능한 조종사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조종사에게 조종사의 상징 '빨간 마후라'를 매어 주고 있는 이한호 참모총장

1 제17전투비행단에서 실시한 항공기 제독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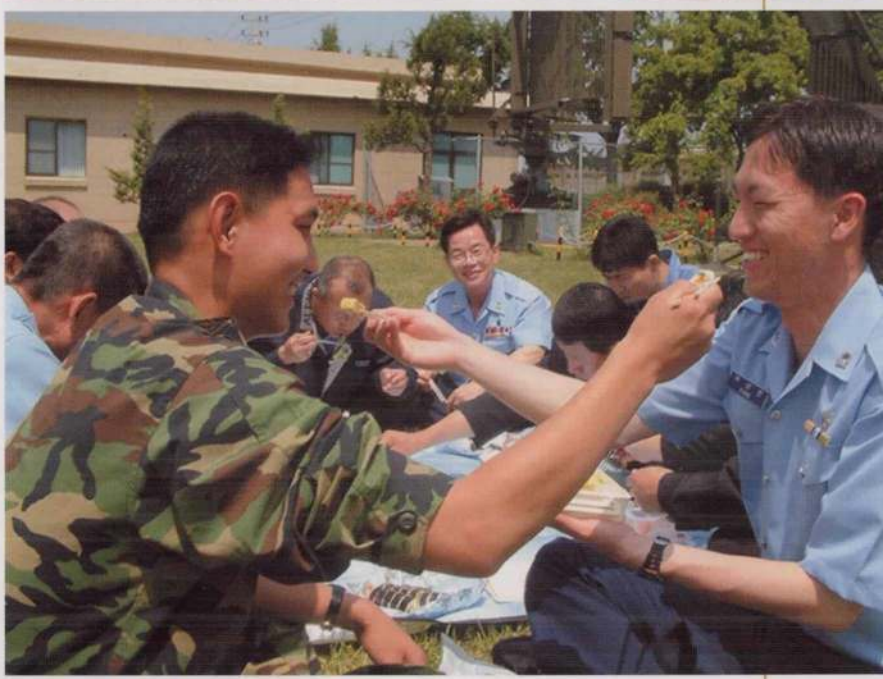
2 이기동 참모차장은 중추절을 앞둔 9월 22일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성모의 마을'을 방문, 이들에게 위로의 뜻과 함께 성금을 전했다.

3 15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수립한 공군사관학교 212비행대대

4 공군본부 주임원사단은 9월 8일 육군과 해군, 해병대 등 각 군 군단급 이상 주임원사 40여명을 부대로 초청, 공군 작전사령부 견학과 항공기 탑승행사를 가졌다.

5 제20전투비행단은 9월 18일 인터넷 군사전문 사이트 '유용원의 군사세계' 회원들을 부대로 초청, 비행대대 견학, 무장전시 관람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했다.

6 제8전투비행단은 9월 4일 부대 공원에서 부사관 부부 4쌍에 대한 합동 결혼식을 실시했다.



7 군수사령부가 '신바람 나는 부대 문화 창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월 실시하고 있는 '도시락 데이'

8 제7회 충주세계무술축제 시범행사로 택견시범을 선보인 제19전투비행단 장병들

9 부대 인근 독거노인 수용시설을 방문,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 제11전투비행단 항공의무 전대 장병들

10 제18전투비행단은 9월 8일 강원도 정선군 2개 분교 초등학생들을 초청, 장갑차 탑승, 비행대대 견학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가졌다.

11 자기혁신운동(SR) 기간을 이용해 인근 양로원(삼소원)을 방문, 일일 봉사활동을 실시한 제3훈련비행단 215비행교육대대 조종사들

독립운동 비행사 양성과 『공군』 창설의 꿈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서 인 한 (문학박사)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의 끝자락을 달구며 시작된 '과거사' 문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부끄러운 과거사를 청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랑스러운 역사가 잊혀져 가는 것은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조국 독립을 위해 이국땅에서 비행사 양성과 공군 창설에 헌신했던 선각자들의 각고의 노력과 정신은 우리가 널리 알리고 계승해야 할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행대 편성 계획

올해로 공군은 쉰다섯의 나이가 되었고, 그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그 역사는 이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한 1920년부터 시작된다. 1차 세계대전에서 비행기의 위력을 실감한 임시정부 지도자들은 통신 연락용, 혹은 심리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행대 편성 계획을 세웠다.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독립을 위한 민족적 열망이 치솟던 1920년 초, 상해에서는 임시정부 노동총판 안창호(安昌浩)를 중심으로 비행기 도입 운동이 전개되었고, 미국에서는 군무총장 노백린(盧伯麟)을 중심으로 비행사 양성 계획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 중 상해에서의 계획은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아 도중에 중단되고 말았다. 결국 임시정부는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던 비행사 양성 계획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다.

미국에 세운 한인 비행학교

우리 독립운동 역사상 최초의 비행사 양성은 1920년 2월 캘리포니아 북부에 위치한 글랜 카운티 윌로우스(Glenn County Willows)에서 노백린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1916년 12월, 하와이로 망명한 노백린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한 후에는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교관과 학교장을 역임한 군인이었다. 그리고 1919년 9월, 임시정부 군무총장에 선임되자 이듬해 초부터 한인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를 거점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같은 활동의 배후에는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총무 곽림대(郭林大)와 쌀농사로 거부가 된 김종림(金鍾林)의 헌신적인 지원이 있었다. 당시 대규모 벼 농장을 경영하던 김종림은 1차 세계 대전으로 군용 쌀의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마침 풍년이 들자 엄청난 수입을 올려 부호가

된 인물이었다.

비행 조종사 양성소는 김종림의 농장에 활주로 · 격납고 등 부속 시설을 건립하고, 일부는 폐교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미국 레드우드 비행학교 교관이던 브라이언트(Bryant)와 이미 교육을 받고 있던 이용선 · 오임하 · 이초 · 우병옥 · 노정민 · 박낙선도 초빙했다.

1920년 4월 중순부터 비행관련 교육을 실시해오던 양성소는 비행기가 속속 도착하면서 더욱 활기를 띠었다. 수직 꼬리에는 태극마크를 부착하고, 동체에는 『KAC(Korea Air Club)』를 그려 넣어 한국의 비행기임을 과시하였다. 7월초에는 무선장비를 갖춘 신형 비행기 2대를 도입하여 훈련에 투입하였다.

이렇게 비행사 양성 체제가 갖추어지자, 7월 5일에는 2백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식 개소식을 거행하고, 신입생 15명을 선발하였다. 이때 참석자들은 미국인 교관과 오임하(吳林河)가 조종하는 신형 비행기 2대의 시험 비행을 관람하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된다.

곧이어 7일에는 레드우드 비행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던 이용선 · 오임하 · 이초 · 우병옥을 첫 졸업생으로 배출하게 된다. 이들은 졸업과 동시에 교관 자격으로 후진 양성에 참여하는데, 이 중 이용선과 이초는 앞서 캘리포니아 북부 새크라맨토에서 개최된 3 · 1절 기념식 축하 비행을 계획했던 비행사들이기도 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한인 동포들은 비행사 양성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비행가 양성사(飛行家 養成社)』라는 후원 조직을 결성하기에 이른다. 『비행가 양성사』는 본문 7개장 22개조와 부칙 9항으로 제정된 이른바, 『비행가 양성사 장정(章程)』을 통해 "본사의 목적은 조국의 독립전쟁을 위하여 비행가를 양성함에 있음"이라고 천명하며, 광복을 위한 공군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 무렵 비행학교는 40여 명의 회원이 후원하는 가운데 교관 6명이 비행사 19명을 양성하는 규모로 성장한다.

『一臺當萬』의 항일정신으로 무장

한인 비행사 양성학교는 지방신문 『윌로우스 데일리(Willows Daily)』의 관심을 끌었다. 학교장 노백린의 인터뷰와 비행학교 관련 소식이 자주 기사화되었고, 이로 인해 미국인이 입교를 요청해오는가 하면 학생이 80명으로 증가하기

미국 윌로우스의 한인 비행사 양성소와 훈련용 비행기(1920)

도 했다. 당시 학교장 노백린은 교육생들에게 일기당천(一騎當千)이 아닌 『일대당만(비행기 1대로 1만 명을 대적한다)』의 각오로 항일 투쟁에 나설 것을 역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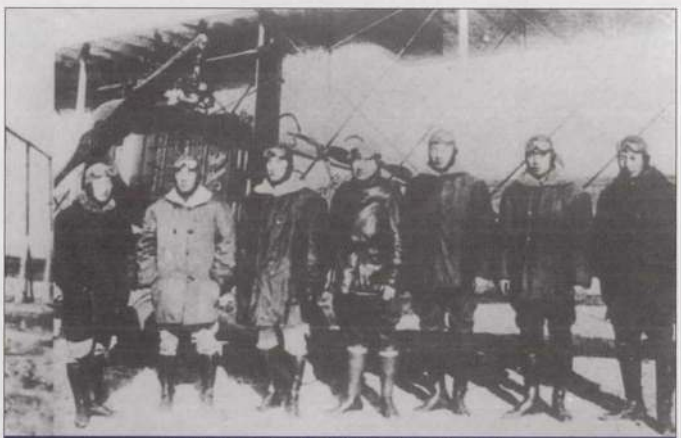
중국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비행사 양성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 장차 이들로 비행대를 편성하고 비행기 조립 기술을 익혀서 다수의 비행기를 확보하면 공중전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1920년 말, 때아닌 폭우와 쌀값 폭락의 여파로 재정이 마비되자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학교는 1923년, 11명의 졸업생만을 배출한 채 아쉽게도 문을 닫고 만다. 한편 한인 비행학교가 없던 중국에서는 임시정부의 주선으로 한인 젊은이들이 중국 항공학교에서 조종술을 습득하고 중국 공군에 투신하여 『일대당만』의 각오로 대일전선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광복군의 『공군』 창설계획

미국과 중국에서 조종술을 배운 한인 비행사들은 1940년 9월에 창설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가 항일세력을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큰 주목을 받게 된다. 1943년 8월 『공군설계위원회조례』의 공포에 이어, 1945년 3월에는 한국광복군 총사령 이청천(李靑天)과 참모처장 최용덕(崔用德)이 중심이 되어 『한국광복군 건군 및 작전계획』이 수립된다. 당시 '광복 공군' 창설계획은 중국과 미국에서 비행사 교육을 받은 한인들이 있었기에 실현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별도로 광복군을 중국과 미국 공군에 파견하여 훈련시키는 한편 이들 국가로부터 비행기를 임대하여 『한국광복군 비행대』 즉 『공군』을 창설한다는 단계를 설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취지 아래 임시정부는 미군과의 합작으로 공군을 창설하려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소속된 한인 조종사와 정비사를 소집 · 편성하는 것으로, 우선 중국 공군에 복무한 조종사 최용덕 · 이영무 · 정재섭 · 최칠성 · 권기옥과 정비사 김진일 · 장성철 · 손기종 · 이사영 · 염온동 · 왕영재가 소집되었고, 당시 복무 중이거나 미국에서 항공 교육을 받았던 한인들이 추가 소집 대상이 되었다.

한국광복군 총사령부의 『공군』 창설계획은 일제의 무조건 항복으로 말미암아 아쉽게도 중지되고 말았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에서 『일대당만(一臺當萬)』의 정신으로 비행교육을 받은 선각자들은 신생 대한민국 『공군』 건설에 주역으로 활약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창군전사(創軍前史)의 주인공이었던 이들의 뜨거운 열정은 6 · 25전쟁의 국난을 극복하는데 원동력이 되었다.

이처럼 우리 선배들은 그 어려웠던 독립운동기에 타국에서 비행사를 양성하여 공군을 창설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머나먼 미국 땅에서 비행사를 양성하고, 한국광복군의 『공군』을 창설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 숭고한 자주독립 정신은 55년 전 대한민국의 공군을 창설하는 초석이 되었던 것이다. 어언 1세기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공군, 이제 그 역사를 발판으로 또 다른 도약의 꿈을 21세기 새 창공에 펼쳐야 할 때이다.



노백린(중앙)과 한인 비행사들(1920)

해발 1,100미터에서의 킥오프

공군 제30방공관제단 8948부대. 해발 1,100미터가 넘는 고산지대에 위치한 부대이다. 조국 영공감시의 최전방에 위치한 이 부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축구장을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일명 '하늘 축구장' 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구장은 가로 50미터, 세로 80미터의 아담한 구장으로 기존의 좁은 연병장을 축구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확장한 것. 국제규격(최소 100미터×64미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축구장을 가지게 된 8948부대 장병들의 축구장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은 대단하다. "상암 월드컵 구장과 바꾸자고 해도 바꾸지 않을 겁니다!"

'하늘 리그전' 개최

이 '하늘 축구장' 에서 지난 9월 2일 화천 조기축구회, 군청 공무원, 인근의 육군부대 등 총 4팀이 참가한 그들만의 작은 리그전이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8948부대가 그동안 교류 관계를 가져온 지역 단체를 한자리에 초청한 것으로 지금까지 상대팀 그라운드를 방문하는 어웨이 경기만을 치러오던 8948부대에겐 감격스러운 첫 홈 게임이었다.

평지와는 천지차이

하늘 축구장은 해발 1,100미터의 고산지대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평지에서의 시합 때 보다 체력 소모가 2배나 많다. 때문에 기술적인 면보다는 체력적인 면이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였다. 일반 축구장보다 작고 아담한 크기의 연병장이기는 하지만 '하늘 축구장' 에서 뛰는 선수들은 평지에서의 시합보다 더 힘들어 하는 모습이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처음 경험하는 고산 지대의 축구경기로 힘들어 했지만, 소속팀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여 경기에 임하여 각각 세 경기씩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부대를 방문한 화천 조기축구회 소속 한 참가자는 "하늘 축구장의 개장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번 축구대회와 같이 민·관·군이 서로의 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져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8948부대를 비롯한 지역 단체들은 이 지역의 새로운 명물이 된 '하늘 축구장' 에서의 축구경기를 통해 민·관·군 유대 강화는 물론 아직 식지않은 뜨거운 축구사랑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원고정리 편집실

공군 제1호
여군 기장(機匠) 탄생

제3훈련비행단 박선미 하사

항공기 기장이라고 하면 흔히 민간 항공기 조종사로서의 기장을 쉽게 떠올린다. 그러나 공군 최초 항공기 여군 기장(機匠)이 된 박선미 하사의 임무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다.

박 하사는 항공기 정비기장으로서 항공기 한 대의 정비 및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항공기 정비기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력과 더불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 항공기에 대한 각종 장비작동, 정비자격과 시운전(run-up)자격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고, 한 항공기를 정비한 지 최소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만 비로소 기장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남자들만의 영역인 군에 입대하여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고 싶었다는 박 하사는 부산 경성대 재료공학부를 졸업하고, 2002년 4월 25살의 나이에 늦깎이로 군에 입대했다. 임관 후 2년여 기간 동안 특유의 끈기와 근면성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인 끝에 마침내 항공기 정비를 담당하는 총책임자인 기장이 된 것이다.

특히, 공군 항공기 정비분야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여자 부사관 임용제도가 도입되면서 정비사로 임관한 여군들은 많았지만 기장자격을 갖춘 것은 박 하사가 최초라고 한다.

예견된 1호 여군 기장

박 하사는 평소 활발하고 십자수가 취미일 정도로 꼼꼼한 성격으로, 선후배들로부터 업무능력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이고, 병사들 간에도 인기 높은 상관이다. 더구나 쾌활한 그녀의 성격은 자신의 특기인 정비특기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자찬한다.

이를 증명하듯 박 하사는 지난 6월 11일 공군 전투 평가대회에 여군 최초로 참가하여 작전사령관 표창을 받았으며, '04년 9월 8일 여군의 날 기념식에는 여군발전의 공로를 인정, 여군발전단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조출만퇴의 가르침

조출만퇴(朝出滿退)! 정비사들은 이 사자성어를 그들만의 좌우명이라고 한다. 아침 일찍 출근하여 늦게 퇴근한다는 뜻인데, 박 하사는 남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었다고 한다.

"완벽한 정비를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라며 웃음짓는 박 하사의 믿음직한 모습에서는 공군 제1호 여군 기장이라는 수식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다.

완벽한 정비, 항공기 사고 제로화 구현

정비사에게 있어 항공기 정비의 99%는 있을 수 없다. 오직 100%만이 있을 뿐이다. 얼마 전 그녀는 작업을 하다가 중요한 나사 하나를 떨어뜨려 찾지 못하자, 전 부서원들이 동원된 '나사 찾기 작전'을 펼친 적이 있다고 한다.

"조그만 실수가 대형사고를 부르는 큰 결함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 그 실수만 생각하면 아직도 등골이 오싹해요"라는 그녀의 말에서 그녀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박 하사는 자신이 정비한 항공기가 학생 조종사들의 훈련 비행을 위해 이륙할 때가 가장 긴장되지만, 또 동시에 EOR(End Of Run-Way)에 나가 무사히 훈련을 마치고 Landing하는 것을 볼 때면 가장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한다. 마치 장인이 고도의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것과 같은 마음가짐인 것이다.

"후배양성을 위해 정비교관이 되고 싶어요!"

박 하사는 공군 제1호 여군 기장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욕심 또한 많다. "최초라는 수식어가 나를 부담스럽게 할 때도 있지만, 더불어 나를 긴장하게 만드는 것 같다"라며 기회가 된다면 정비분야의 해외교육도 받고 싶고, 여군 최초의 정비특기 교관도 되고 싶다고 한다.

"아직 누군가에게 조언할 만한 위치는 아니지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가리지 말고 주어진 일을 과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비록 현재가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 앞날을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KT-1 한 대를 책임지게 된 박 하사의 다짐처럼 한층 업그레이드된 그녀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제3훈련비행단 중위 **이 성 호**

공중충돌 경고장치 ACAS에 관한 오해

'아찔한 순간?' 진상을 알기 위해 공군본부로 가다

얼마 전 "항공기 간 근접비행을 하다가 공중충돌 경고장치가 작동하는 '아찔한' 순간… 월 평균 3~4회 발생"이라는 신문 기사가 있었다. '공중충돌'이라면, 영화에서나 보던 위험한(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상황이 아닌가? 실제 그런 위험이 수 차례나 있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기자는(편집장교의 섭외로) 공군본부 감찰감실 안전과장 신응균 대령님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말로만 듣던 공군본부, 공군의 비행단은 이미 방문해 본 경험이 있지만, 그 최상위 부서인 본부를 방문하려니 왠지 가슴에 벅찼다. 정문을 지나 청사로 향하는 길 주변에 잘 가꾸어진 잔디들과 어우러져 있는 전시 항공기들을 보며, 예전 비행단에서 만났던 항공기들과는 사뭇 다른 인상을 받았다. 또, 길가에 뛰어다니던 꿩, 사슴 등 동물과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는 이곳 사람들이 부럽기도 했다.

공군본부 감찰감실 안전과장 신응균 대령님.
ACAS의 개념에서부터 작동원리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본청에 들어선 기자는 먼저 건물이 주는 당당함에 약간 기가 죽었다. 정팔면체 모양을 하고 있는 건물 내부에 들어서자, 마치 영화에서 보아왔던 미국방성(펜타곤이라 알려진)이 떠올랐다. 건물이 심어준 당당함을 뒤로한 채, 감찰감실 안전과로 들어가니, 기다리고 계시던 신응균 대령님이 반갑게 맞아주셨다.

ACAS는 무슨 장비?

따뜻한 녹차 한잔과 함께 신응균 대령님의 인터뷰는 진행되었다. 군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기자를 위해 대령님은 먼저 이번에 문제가 된 'ACAS'라는 장비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다. ACAS는 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의 약자로 항공기가 상대방의 항공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조종사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주어 사전에 항로를 변경하도록 도와주는 장치란다. ACAS가 작동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그대로 비행을 하게 되면 ACAS는 단계별로 적절한 음성 경고를 울리고, 긴박한 상황까지 진행되면 강제로 기수를 들거나 내려서 공중충돌을 피하게 하는 똑똑한 기계다. '공중충돌 경고장치'라는 이름 때문인지, 이 ACAS가 작동하는 일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생각했었던 기자, 왠지 신문기사에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공중 충돌의 위험에 직면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니… 경고장치가 울리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비행하는 조종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 말이다.

군용기와 민항기 사이의 ACAS 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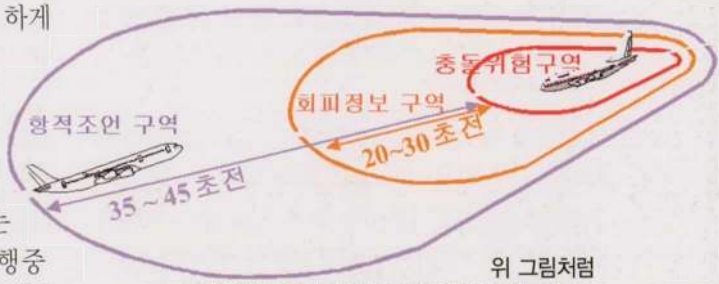
한편, 정해진 공간에서 훈련을 하는 군용기와 정해진 항로를 따라 비행하는 민항기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두 항공기끼리 근접비행을 하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간혹 군용기가 급격하게 기동하면서 기수가 민항기 쪽으로 향할 경우에는 훈련 공역을 벗어나지 않았더라도 ACAS 장비가 자동적으로 작동될 때가 있단다. 하지만 군용기는 이륙 때부터 착륙 때까지 항상 지상에 있는 관제부대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고음이 울릴 수는 있지만 '아찔한 순간'에 이르는 경우는 없다. 또, 좁은 공간에서 많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공항 주변에서도 ACAS 장비가 작동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관제사들이 정밀레이더로 비행기를 유도하며 비행정보를 미리 조종사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항공기가 가까이 접근하여 아찔한 비행을 하게 되는 일 역시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한다.

작동건수 제로(0)를 위한 공군의 노력

물론, 사전에 항공기를 관제하는 기관에서 철저하게 관제를 하여 ACAS가 울리는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비행중 ACAS가 울린다면, 공군은 이를 '가장 주의해야 할 비행'의 수준으로 간주하여 경위조사, 사례전파, 해당자 처벌 등의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최근 들어 ACAS 작동 사례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이유도 공군에서 이같은 조치를 하고, 관련 교육들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얻은 결과"라고 하셨다. 또, "공군은 민항기의 비행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교부 항공안전본부, 우리 영공에서 한미 연합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미 공군 등 관련기관과도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ACAS 작동 제로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인터뷰에 직접 참여해 보니, ACAS에 대한 오해들이 풀리기 시작했다. 먼저, ACAS가 작동하면 조종사들은 이 사실을 인지, 항로를 조정하므로 실제 '공중충돌'은 발생할 수 없다는 것. 또 ACAS 작동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군의 노력과 그 결과 금년에는 ACAS가 한 건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신문 상에는 올 들어 6회의 경고장치가 작동을 했으나, 이는 확인 결과 장비 오작동 및 장비 특성으로 인하여 안전과 무관하게 발생한 사례로서 실제 위험을 초래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고 했다) '역시 공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마음 든든함을 느꼈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도로 위에서 사슴 한 마리와 마주쳤다. 길을 건너가는 사슴을 보며 '자동차에 ACAS 장비를 달아두면, 사슴과 마주치는 일이 없었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며 뿌듯한 웃음을 지었다.



위 그림처럼
ACAS의 작동이 항상 위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객원기자 박 진 선

"누구 목에 ACAS를 달아야 하는가"

니어 미스 과대 유포의 허상을 벗긴다

주간동아 기자 **이 정 훈**

니어 미스에 대한 해석

매년 국회 건설교통위의 국정감사 때마다 국회와 언론에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가 있다. 이름하여 '니어 미스(Near Miss)'.

군사용어로서의 니어 미스는 '지근탄(至近彈)'을 뜻한다.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고 바로 옆에 떨어진 '아쉬운 한 발-'.

그러나 이는 지극히 공자(功者)적 처지에서 나온 풀이이다. 방자(防者) 위치에 있었다면 '골로 갈 뻔 한 탄' '10년 감수한 탄'이 될 터이니, 니어 미스를 공자 입장으로 사용하는 버릇은 버려야 할 것이다.

항공용어로서의 니어 미스는 두 대 이상의 항공기가 가까운 거리를 두고 지나간 '근접기 비행'을 말한다. 항공기, 특히 민항기는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공중충돌은 accident, 니어 미스는 incident로 분류한다.

두 단어는 모두 '사고'로 번역되는데 accident는 큰 사고, incident는 작은 사고란 뉘앙스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같은 사고이지만 공중충돌은 항공기와 탑승자가 희생된 엄청난 참사이고, 니어 미스는 이를 경험한 기장만 '가슴을 쓸어 내렸을 뿐'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큰 차이를 담고 있다.

니어 미스는 주관적인 '느낌'이다. 니어 미스는 예상치 못한 항공기가 나타나는 바람에 '10년 감수'할 정도로 깜짝 놀랐던 기장이 쓰는 '기장보고서(이른바 Captain's Report)'에 주로 나타난다. 지극히 감정적인 것이기에 니어 미스는 과학적으로 정의(定義)할 수가 없다. 국제민간항공기구도 니어 미스를 '충돌 위험이 있었을 만큼 항공기가 근접했던 상황'으로 막연히 규정해놓고 있다.

니어 미스 및 공중충돌 회피장치 ACAS

그러나 '방귀가 잦으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니어 미스는 가급적 줄여주어야 한다.

항공용어로 트래픽(traffic)은 '항공기의 진행 방향에 다른 비행물체'가 있다는 뜻이다. 공중충돌은 트래픽 때문에 이뤄지는 것이니, 조종사에게 인근에 트래픽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니어 미스나 공중충돌을 피할 수 있다.

그리하여 Traffic Alert and Collision Avoidance System, 줄여서 '티카스(TCAS)'라고 하는 공중충돌 회피 장치가 개발되었다. 그리고 요즘에는 보다 발전된 '에이카스(ACAS: 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가 개발되었다. 정부는 1998년 9월부터 30인승 이상의 모든 민항기에 반드시 ACAS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했다.

사람은 모르면 놀라지만 알면 놀라지 않는다. 상대가 총을 쏴도 빗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투사는 전혀 놀라거나 겁먹지 않고 돌진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방심한 상태로 있었다면, 저 멀리에 떨어진 총알도 제 머리에 떨어진 것으로 느껴 '화들짝' 놀랄 수도 있다.

그러나 감정이 없는 기계는 기계적인 반응만 한다. ACAS는 기장이 인지했던 인지하지 않았던 상관하지 않고 일정 거리 안으로 트래픽이 들어오면 경보를 울리고 그 트래픽을 회피할 수 있는 녹음된 메시지를 전해준다(예를 들어 "기수를 오른쪽으로 돌려라" "위로 올려라" 등의 녹음된 소리가 나온다).

ACAS 경보 발생을 둘러싼 인식 차이

건설교통부의 항공안전본부는 민항기 기장들에게 'ACAS 경보가 발생하면 반드시 보고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그리하여 2000년부터 매년 38건, 65건, 46건, 26건, 6건(올해는 6월말까지)이 발생했다는 캡틴 보고서가 있었다.

이 보고서가 '질타할 것'과 '보도할 것'을 찾는 사람들에겐 '꺼리' 감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감이 열리면 국회와 언론은 한두 차례 '한국 상공에 니어 미스 빈발'을 거론하고 지나가게 된다. 표현은 니어 미스를 피하라는 것이지만 그 밑에는 공자(功者)적 뉘앙스도 깔려 있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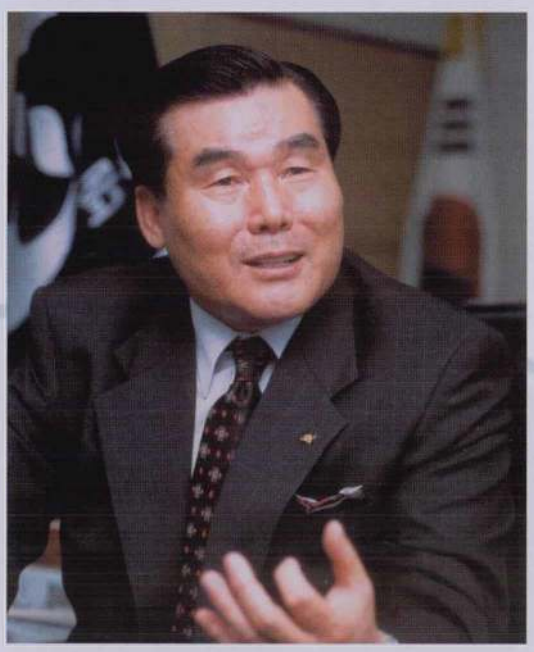
ACAS는 니어 미스와 공중충돌을 피하는 매우 방자적(防者的) 장치이다. Accident는 물론이고 incident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인데, 질타하는 사람과 보도하는 세력은 이를 incident로 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우기는 것만큼이나 큰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은 영토가 작은 만큼 공역(空域)도 좁은 나라다. 그런데 민항기 시장 규모는 세계 7~8위 권이고, 공군력 수준도 세계 8~9위 권이다. 좁은 데 민항기와 공군기는 많이 몰려 있으니 ACAS가 울릴 일은 많을 수밖에 없다. 또 항공기가 이착륙하거나 장주 비행을 하는 공항 부근은 니어 미스가 다반사로 일어나는 곳이다.

항공 사고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방귀가 잦으면 뭐 하기 쉽다'는 속담은 다른 데도 적용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ACAS가 울린 것은 사고가 아닌데 자꾸 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진짜 사고를 불러오는 심리적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보다 성숙한 사회로 진입하는 지금 구태의연한 자료로 세상을 놀라게 하려는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 ACAS를 달아야 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박종권 이사장(공사 9기)



때늦은 장마비가 시원하게 내리던 초가을 오후. 성큼 다가온 서늘한 기운에 옷매무새를 다시 여미며 서울에 위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걸음을 옮겼다. 공사 9기로 임관하시어 30여년을 공군에 몸담으시고 '92년 전역, 현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박종권 이사장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였다. 접견실로 들어오시던 이사장님의 풍채와 강한 인상에 제압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 긴장은 한층 더해왔다. 그러나 그 또한 나의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 직접 집무실로 안내해 주시고 다양한 현역시절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설명해 주시며 보여주시는 온화한 미소에선 긴장감이 눈 녹듯 사라졌고, 편안함마저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집무실 티 테이블에서 시작된 대화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보훈사업을 진두지휘하고 계신 박종권 이사장님의 현역시절 이야기와 함께 후배 공군장병들을 위해 남겨주시는 좋은 말씀도 들을 수 있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최근의 사업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크게 복지사업과 의료사업으로 나뉘는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하는 보훈복지와 의료를 위한 기관입니다. 즉,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건강, 노후복지증진을 위한 국가적 사업 정책을 수행하는 곳이지요. 최근 공단의 활동을 말씀드린다면 서울 중앙보훈병원 건립과 제주도 국가유공자 복지휴양시설 건립추진 등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보훈사업을 비롯해 중국 연변의 독립운동가 후손 위로 건강진료와 같은 해외 의료봉사활동에 이르기까지 활동 범위가 매우 다양하고 넓습니다.

어떤 계기로 공군/공사에 지원하게 되셨는지?

인간은 누구나 한 번쯤 하늘에 대한 동경을 해볼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나도 시작은 그러한 동경이었죠. 어릴 때부터 하늘을 좋아했고 꼭 하늘을 날고 싶었는데 막연한 꿈만은 아니었어

요. 하늘을 날겠다는 꿈을 위해 공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전투조종사라는 꿈을 이루게 된 거죠.(웃음)

오랫동안 공군에 몸담아 오시면서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물론 조종사로서의 기억들이죠. 매년 10월 1일 한강변을 멋지게 수놓았던 에어쇼와 공군 전력화의 획을 긋는 사건이었던 팬텀기 인수단의 일원이었던 것은 잊지 못할 자랑스러운 기억입니다. 사실, 60년대에는 에어쇼가 참 큰 볼거리 중의 하나였어요. 한강 모래사장을 가득채운 수백만 인파들 사이를 용공돌이, 수직비행 등을 하며 지나치던 기억과 강화로 이어지는 한강변에 흐드러지듯 펴 있는 코스모스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하늘을 날던 나로서는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그리고 '68년 팬텀기 인수는 한국공군 역사에 있어 매우 의미 깊은 사건이었어요. 당시 F-4 팬텀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최신예 전투기로서 미국과 극소수의 우방국들만이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역사의 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은 나를 참으로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었지요.(웃음)

현역시절, 지휘비행을 마치고

후배 공군장병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말씀을 남겨주신다면?

누구나 지금의 생활이 절대 쉽거나 편하지 않지요. 그런데 인생이란 것이 늘 그렇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길을 선택하던지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가 참 어렵고 힘들기 마련이거든… 그러한 과정 안에서 의미를 찾고 자기성찰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는 원동력이자 열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에 앞서서 강한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구요. 또, 그 목표라는 것도 꼭 원대하고 먼 미래의 것이 아니어도 좋아요. 단지 하루하루의 작은 계획들이라도 충실히 만들고 실천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돌아옵니다. 이 계획들이 모여서 결국 인생의 큰 계획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영광과 성취를 원하지만 이런 작은 이치를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의 목표에 대한 고민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낸다면 그것이 인생 성공을 향한 지름길이라는 생각입니다. 늘 계획을 세우고 이에 정진하는 모습을 젊은 장병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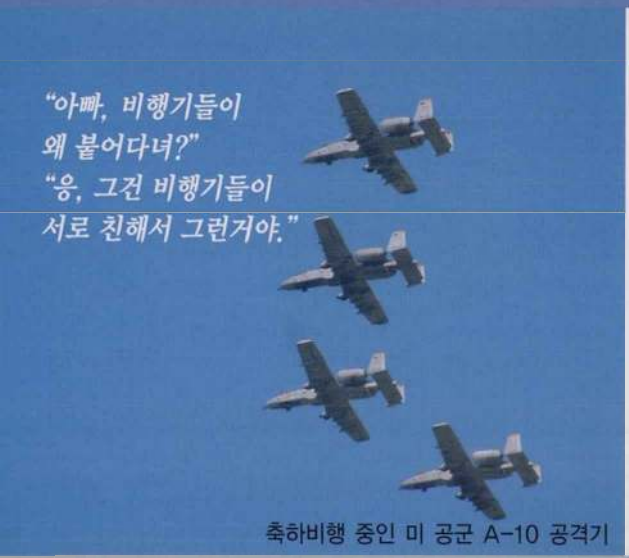
박 이사장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이야기를 강조하시면서 철학과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조나단' 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도 남기셨다.

접견실 곳곳에 전시된 조종사 시절의 사진들. 하늘에 대한 꿈과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신 채 또 다른 곳에서 열정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이사장님. 항상 꿈을 잃지 않은 소년의 마음으로 '인생계획' 을 멋지게 실천하고 계신 모습은 이 나라를 살아가는 젊은이의 한 사람으로서도 큰 귀감이 되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 인생의 대 선배님으로서 이사장님의 삶의 철학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다.

객원기자 오 경 수

2004 AIR & SPACE POWER DAY 행사를 다녀와서



"아빠, 비행기들이 왜 붙어다녀?"
"응, 그건 비행기들이 서로 친해서 그런거야."

축하비행 중인 미 공군 A-10 공격기

9월 19일 일요일. 오산에 있는 미51비행단에서 2004 Air & Space Power Day행사가 있었다. 지난 2002년 한국전 50년을 주제로 처음 시작된 본 행사는 2003년 항공력 100주년을 기념한 데 이어 올해는 항공력 투사능력을 중심으로 비행이 펼쳐졌다. 민간인의 출입이 쉽게 허락되지 않는 곳으로의 초대인 만큼 많은 이들의 얼굴에 호기심이 가득했다.

비행기는 사랑을 싣고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한 시간쯤 달렸을까? 도착한 미51비행단에는 전날 비가 왔다는 사실을 금새 잊을 만큼 (햇빛에) 뜨겁게 달구어진

CN-235 조종석 창문을 열고 포즈를 취한 객원기자

활주로가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아랑곳하지 않고 밝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사장을 찾아서일 것이다.

조종사를 아버지로, 남편으로 둔 사람들에서부터 공군 병사와 함께 온 어머니의 따뜻한 시선까지 행사장은 모든 것을 아우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특히 비행기 장난감을 들고 진짜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 올라선 것이 신기한 양 연실 눈을 땡그랗게 뜬 아이들, 분명 이 아이들 속에 공군의 미래가 있었다. 창공이 말하려는 푸르름이 있었다.

대지를 향해 온몸을 던지는 공중 낙하시범

이번 행사장은 입구에서 티켓을 확인하긴 했지만 여느 행사장처럼 무대나 전시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일단 비행기 한 대만 하더라도 수십 명의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규모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십 대의 비행기가 전시돼 있는 행사장이 얼마나 큰 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공중 낙하시범, 한국 공군 KT-1 기동시범을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공중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행기를 둘러보다가도 다시금 하늘을 마주해야 했다. 그리고 땅에 고정돼 있는 비행기를 보다가도 이륙하는 전투기를 렌즈에 담기 위해 뛰어가는 사람들의 발엔 열정 너머 공군을 향한 특별한 시선이 함께했다.

미 공군 특수비행팀 선더버드의 에어쇼

특히 거대한 수송기에서 오색빛깔을 뿜어내며 낙하하는 공중 낙하시범은 사람들로 하여금 초가을, 여름이 아쉽다며 강하게 내리쬐는 햇살도 무의미하게 했다. 공중 낙하시범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그늘이라곤 육중한 전투기의 아래뿐인 그곳에서도 빠져 나와 대지를 향해 온몸을 던진 공군들을 환호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단 하루, 오늘을 위해 수십 일 동안 연습해 온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힘찬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하늘에 희망을 그리는 사람들

이번 행사에서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것은 바로 미 공군 선더버드 에어쇼였다. 여섯 명의 미 공군 조종사가 전투기에 탑승을 하기까지의 과정과 직접 비행을 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인데 비행을 하기까지 한 동작 한 동작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특히 동작 하나하나를 돋보이게 하는 웅장한 배경음악은 미 공군을 지켜보는 관람객에게 긴장감을 한층 높여주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갑자기 한쪽에서 갓난아이 하나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마도 이륙하는 비행기 소리에 많이 놀랐나 보다. 그러나 이내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개를 위로 하는 게 신기한 듯 연실 방긋방긋 웃는다. 사람들 또한 평소에 하늘을 그렇게 오래 쳐다볼 기회가 없었다는 양 뻣뻣한 고개를 과감히 뒤로 젖히고 오래도록 하늘을 보려고 두 손으로 아치를 만들어 열심히 햇빛을 가렸다.

그렇게 시작된 쇼는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방문객들에게 항공무장을 설명하고 있는 미 공군 조종사

안전선 밖에서 미 공군 특수비행팀 선더버드의 F-16 항공기를 구경하고 있는 관람객들

절로 갈채를 받아내기에 충분했다. 비행기가 회전하거나 거꾸로 나는 것은 기본이고 양쪽에서 한 점을 놓고 빠르게 비행하더니 그 한 점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몸을 비틀어 아슬아슬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해 남녀노소 하늘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 어느 때보다 맑은 하늘은 세상에서 가장 큰 도화지가 돼 주었으며 미 공군 조종사들은 그 도화지 안에 희망을 그리고 있었다. 마치 움직이는 크레용이 된 양 조종사들은 자신들의 몸을 수직으로 거꾸로 비행기와 일치시키며 57년 미 공군의 역사를 한 눈에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122명의 정비사들, 그리고 3천여 명의 관객

에어쇼가 끝나자 착륙한 미 공군 선더버드의 조종사들이 관중들을 향해 멋지게 걸어왔다. 오랜 비행에 많이 피곤했을 텐데 검게 그을린 피부에 건강한 웃음을 머금고 자신들의 얼굴이 새겨진 팸플릿에 사인을 요구하는 관중들을 직접 맞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사인을 하는 조종사들을 뒤로 122명의 정비사들의 노고를 기리는 내레이션이었다. 지금까지 정비문제로 인해 에어쇼를 취소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1만 7천여 시간이 넘는 조종사들의 비행능력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원동력인 정비사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또한 더운 날씨에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르는 줄도 모르고 한결같이 전투기와 조종사들에게 박수를 아끼지 않은 관람객들 또한 진정한 주인공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가르는 비행기 소리에 때때로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도록 하늘을 바라보며 느낀 것은 하늘은 정말 넓고 맑고 푸르고 아름답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하늘을 지키는 공군이야말로 시대의 기상을 이어나가는 진정한 푸르름이 아닐까? 지난 일요일, 활주로의 열기가 다시금 그리워진다.

객원기자 **이 예 진**

미 해군 F/A-18 전폭기

역대 작전사령관들의 사진과 소장품

기념실 곳곳에 설치된 '음성자동안내 시스템'

작전사령부

歷史기념실

겉과 속이 다르다?

공군 작전사령부 정문. 헌병의 어깨 너머로 들여다본 그곳은 그저 평온해 보이는 공원의 느낌이다. 이렇다할 사건도, 시끄러운 소음도 없을 것만 같은 이곳. 이곳이 바로 모든 공군력을 지휘통제하는 '공군의 핵' 작전사령부이다.

건물을 들어서자 좀 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전투복을 입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멀게만 느껴지던 '전쟁', '전시'의 개념이 피부에 와 닿는 이 순간, 군기(軍紀)에 익숙하지 않은 기자는 어색하기만 하다. "좀 타이트하죠? 작전사령부가 하는 일 때문에 그래요. 전투비행단, 방공포부대와 관제부대 등 공군의 전력을 진두지휘하고 유사시에는 지·해상군의 작전수행까지 보장하죠. 한마디로 공군 작전의 핵심부죠. 그러다 보니 늘 이렇게 긴장감이 느껴질 수밖에요."라며 동행한 월간 〈공군〉 편집장교가 살짝 귀띔한다.

Top Gun 기념패, 상장 등 역대 Top Gun들의 소장품

살아있는 다큐멘터리, 역사기념실

작전사령부(이하 작사)의 이런 역할 때문일까. 작사의 역사는 곧 공군의 역사이니, 지난 50년에 걸친 공군과 작사의 생생한 다큐멘터리가 바로 이곳, 작사 청사에 숨쉬고 있다. 지난 8월 개관한 작사 청사 역사기념실이 바로 그 주인공.

2003년 12월 조성공사를 시작해 지난 8월 작사 청사 1층 로비에 개관한 역사기념실은 그 규모가 80평 남짓에 불과하지만, '61년 작전사령부 창설 이후 각종 문헌 및 영상자료를 비롯하여 역대 사령관들의 소장품, 항공기, 항공무장 모형 등 430여 점의 역사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 '알짜배기' 역사 문화 공간이다.

작사 마크가 새겨져있는 자동문이 열리자, 작사 마크 소개와 함께 사령부의 발전사가 눈에 들어온다. 시대의 굽이굽이, 공군의 역사도 이야기거리가 참 많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병력 1800여 명과 경비행기 22대로 북한공군에 비해 열세한 전력이었던 우리 공군이 불과 50여 년 만에 한국형 전투기 KF-16을 생산하고 최근 F-15K를 도입하는 등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니 말 그대로 괄목상대(刮目相對)인 셈. 진열장에 전시된 사령부 창설 관련 문서도 양적 · 질적 성장을 거듭한 공군의 살아있는 증거이다.

아, 깜짝이다. 분명 옆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상하게 설명해주시던 역사기념실 조성 담당자 오세국 소령님뿐이었는데, 난데없는 음악소리에 쩌렁쩌렁한 젊은 남자의 목소리다. 흠칫하며 두리번거리는 기자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음성자동안내시스템'.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 언어로 가동되는 이 시스템은 관람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손쉽게 전시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따 영어로 한 번 틀지?"라는 오 소령님. '설마, 질문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성우의 안내에 따라 이동한 곳은 창군 초기 및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항공기에서부터 2005년 도입예정인 F-15K전투기까지 공군이 운용했던 항공기들을 그 도입연도에 따라 한눈에 알기 쉽게 분류해 놓은 표. 항공기에 장착되는 여러 무장들과 함께 전시된 이곳은 육 · 해군과 구별되는 공군만의 영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대가 달라지면서 미끈해진 것은 여성의 몸매만이 아닌 듯.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끈매끈해지는 전투기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게 한다. 뭇 남성들이 미끈한 여성을 좋아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가 아닐까.^^

영화 속 한 장면을 그대로

작사의 역사기념실이 타 공군박물관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생생한 작전과 전술훈련체계를 전시하고 있다는 점. '성공적 전투작전'으로 꼽히는

역사기념실 입구 벽면에 연도순으로 전시된 역사사진들. 공군의 변천과 발전을 한눈에 조감할 수 있다.

'귀순기 유도 작전', '대간첩 작전' 등 최근까지 있었던 공군의 주요작전들을 현장감 있게 설명하고 있는 이곳은 이어 전시된 '전술훈련체계'와 더불어 조종사들의 땀방울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7회에 걸친 귀순항공기 유도작전과 400여 회 출격을 통한 대간첩작전을 수행한 생생한 현장의 순간이 각각의 문서와 함께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다.

이런 생동감 있는 현장이 가장 잘 담겨있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전술조치 디오라마'. MCRC 실물 축소 모형과 영상 및 레이저 조명을 조합해 실시간 방공작전 상황을 시현하는 이것은 작사 역사 기념실의 꽃이다. 얼핏 영화 〈탑건〉을 연상시키는 영상은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에서 실제 그것보다 훨씬 긴장감 있게 느껴진다.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탐지, 식별, 요격, 격파의 방공작전 4단계의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이 디오라마. 영화 속에서는 멋지게만 보였던 이 장면이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도 이를 위해 땀 흘리고 '희생'하는 많은 조종사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탐 크루즈? 오, 노~ 나는 대한민국 탑건!'

한쪽 벽면을 가득 메운 멋진 남자들. 다름 아닌 역대 '탑건'이다. 영화 〈탑건〉의 탐 크루즈를 상상했다면 오산. 훨씬 더 잘생긴…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 사실 탐 크루즈가 잘생기긴 했지 않은가 – 그에게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전율을 느낄 수 있다. 지난 반세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온 '진짜' 영웅들이었기에.

탑건은 지난 1960년대부터 있었던 '보라매 공중사격대회'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조종사에게 부여되는 가장 명예로운 칭호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탑건의 명단과 역대 사령관의 명단이 묘하게 비슷하다는 것. 그 명예만으로도 모든 조종사들이 꿈꾼다는 탑건, 이쯤 되면 정말 할 만하지 않은가.^^

하늘로! 우주로!

역대 사령관의 기증품 및 '걸프전 참전 전투복'을 포함한 다양한 자료가 보관되어 있으며, 이 밖에도 공군 소개영화, 에어쇼 등 다채로운 항공 영상물을 관람할 수 있는 역사 기념실. 이곳에는 공군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봄과 동시에 미래를 조망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우주공간을 이용한 '항공우주력'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및 계획이 바로 그것. 끊임없이 '하늘로 우주로' 비상하려는 공군의 노력이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것은 아닐까.

하나하나 소중하게 전시된 공군의 역사. 역사기념실이 작사의 새로운 명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객원기자 **이 지 연**

23년간 자전거로 출퇴근한

박 / 만 / 식 군무원

23년간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얻은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그는 서슴없이 '건강'이라고 대답한다. 물론, 교통비가 절약되어 경제적으로도 큰 보탬이 되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건강'이 아니겠는가.

23년간 자전거로 출퇴근한 사나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유가로 인해 경제난이 심각한 요즘, 공군 제15혼성비행단(이하 15비)에는 23년 동안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는 공군인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시설대대 보수중대 도장반장. 이것이 그의 직함이다. 박 군무원은 신혼 살림 때부터 지금까지 23년간 줄곧 15비에 근무하면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박만식 군무원의 교통수단

자전거는 흔히들 취미 활동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박만식 군무원에게 있어서 자전거는 가장 중요한 교통 수단. 자택에서 직장까지 매일 4Km 이상을 자전거로 출퇴근한 박만식 군무원이 지금까지 자전거로 이동한 총 거리는 어림잡아도 55,000Km가 넘는다. 지구를 한바퀴 돌고도 남는 거리를 자전거로 달린 것이다.

23년간 이용한 자전거는 총 3대에 불과

자전거로 지구를 한바퀴 돌아올 동안 그가 사용한 자전거는 3대에 불과하다. 워낙에 근검 절약이 몸에 배어 있기도 하지만 자전거에 대한 그의 관심과 애착이 유별나기에 심각하게 고장난 자전거도 쉽게 버릴 수 없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자신의 자전거를 닦고, 조이고 관리하는 노력이 있었기에 그의 손에 들어간 자전거들은 최소 7~8년의 장수(?)를 누린다고 한다.

자전거가 준 행복

23년간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얻은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그는 서슴없이 '건강'이라고 대답한다. 물론, 교통비가 절약되어 경제적으로도 큰 보탬이 되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건강'이 아니겠는가. 그가 자전거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도 바로 자전거와 함께 했기 때문에 얻은 '건강'이 아닐까.

"지치고 힘든 하루였을지라도 잠자리에 들기 전 나의 자전거를 둘러봅니다. 십여년을 함께 해온 친구(자전거)에게 늘 고마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박만식 군무원의 자전거 예찬론이다.

가끔씩 버스도 탑니다.

물론 박만식 군무원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하지만 그 횟수는 손으로 꼽을 정도. '폭설이 내려 자전거 바퀴가 눈 사이에서 빠지지 않아 버스로 출근한 적이 있다' 라며 "어지간한 악조건이 아닌 이상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라고 대답한다. 또 회식이 있는 날은 "음주운전은 절대로 안합니다"라며 그럴 때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한다.

자전거와 함께가는 길

자택과 부대를 오가는 길은 박 반장에게 사색의 시간이다. 출근하면서 하루의 일을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는 그날 하루의 일을 마무리한다. 부대 구석구석을 다니며 보수작업에 여념이 없지만 자전거와 함께 하는 길이면 어느 곳이든 마다하지 않는다. 심지어 집에서 멀리 떨어진 모란시장과 분당까지 물건을 사러 갈 정도로 그의 자전거는 자가용의 몫을 톡톡히 차지하고 있다.

아직 자가용 구입계획은 없어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데 차를 살 생각이 없냐고 물으면 두 손을 내저으며 말한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자가용이라니요! 낭비 아닙니까. 아직도 집 없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럴수록 아껴야 합니다. 전세나 셋방살이하는 사람들이 자가용은 여러 대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차는 꼭 필요한 경우에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저는 차가 필요하지 않구요."

자가용을 구입한지 몇 년 되지도 않아서 새차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들이 박만식 군무원의 근검 절약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 간다면,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원고정리 **편집실**

세계가 주목하는 우주강국

중국 I

세계 3번째 유인우주선 발사에 성공하며 새로운 우주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중국.

중국의 우주활동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중국의 우주활동 이해를 위해 먼저 이번 호에는 개괄적인 우주산업의 흐름을 살펴보고 다음 호 제2편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분야별 산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세계 3위의 우주강국 중국

중국은 1970년에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일본에 이어 세계 5번째로 인공위성 'DFH(東方紅)-1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우주활동의 서막을 열었다.

이후 중국은 우주대국이 되기 위해 외국의 선진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마침내 작년 10월 유인우주선 'SZ(神舟)-5호' 발사 및 회수에 성공함으로써 미국 및 러시아에 이어 세계 3번째 우주강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의 초기 우주활동은 국내응용을 포함하는 국내용 도용이 중심이 되었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는 CZ(長征)로켓에 의한 상업발사 비즈니스를 개시, 1990년에는 'Asiasat-1' 호로 첫 상업발사에 성공하였다. 처음에는 발사성공률이 낮았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으나 연속적 발사가 성공한 1996년부터는 신뢰도가 많이 향상되었다.

중국의 우주계획 목표는 경제 · 안보 · 기술 · 사회적 수요 부응을 통한 국익수호 및 국력증강에 있으며 중국은 과학기술을 국력의 기본 요소로 인식해 왔다.

유인우주선 분야

작년 10월 유인우주선 'SZ(神舟)-5호' 의 발

사 및 회수성공은 다양한 과학분야의 교차적 집성 및 첨단기술의 종합적 구현이 실현된 것으로, 중국 과학기술 수준의 새로운 도약은 물론 우주비행 및 공간기술의 세계 선진대열 진입을 의미한다.

중국은 유인우주선 프로그램 『Project 921』에 의해 1992년부터 유인우주선 발사계획을 착수하였다. 유인우주선 발사를 위한 준비단계로 1999년 첫 무인우주선 'SZ(神舟)-1호'를 발사하였고 그 후 2001년에는 2호를, 2002년에는 3호, 4호 총 4차례에 걸쳐 무인우주선 발사에 성공하였다.

중국 정부는 중국의 두 번째 유인 우주선인 'SZ(神舟)-6호'를 2004년과 2006년 사이 발사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는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고 있다. 'SZ(神舟)-6호'의 주요 임무는 복수 승선 및 3일 이상의 장기체공 돌파이다. 중국은 'SZ(神舟)-6호'를 마지막으로 『Project 921』을 마감할 것이며, 이후에는 우주 도킹 및 유영이 가능하고 우주연구까지 수행할 수 있는 제2단계 유인우주선 프로그램 『Project 921-2』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인우주선 프로그램은 총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며 제 3단계 목표는 2020년까지 20t급의 영구 우주정거장을 건설하는 것이다.

향후 우주개발 계획

중국 우주기술의 중점은 차세대 발사로켓 개발, 우주 기초시설 건설, 유인우주선 프로그램 2단계 전개, 그리고 우주과학 탐구 강화에 있다.

유인우주선 프로그램의 장기목표에는 우주 왕복선 및 우주공장 건설 그리고 달 및 화성탐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달 탐사계획은 3단계로 추진될 예정이며 제 1단계의 목표는 2007년 이전까지 달 주위 비행 및 자료 수집이며, 제 2단계는 2010년 이전까지의 달 표면 착륙 및 자료 송신, 제 3단계는 2020년까지 시료 채취 및 지구 귀환이 그 목표이다. 이밖에 화성탐사위성은 2020년 이전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주산업 개요

중국은 우주과학 및 우주기술을 전투력의 핵심 요소로 간주해 왔다. 이로 인해 중국의 우주산업은 줄곧 인민해방군의 통제하에 추진되어 왔고 현재 모든 발사 및 추적 시설들 역시 인민해방군의 관리하에 있다.

현재 중국이 개발한 위성 시리즈에는 회수식 원격탐지위성과 통신방송위성 DHF (東方紅), 기상관측위성 FY(風雲), 해양감시위성 HY(海洋), 항법위성 BD(北斗), 과학실험위성 SJ(實踐), 자원탐사위성 ZY(資源) 등이 있다. 중국은 이미 다양한 용도의 위성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보다 발전된 위성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발사체 부분에서는 12종의 다양한 CZ(長征) 로켓을 개발하여 다양한 궤도 발사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주취안(酒泉), 시창(西昌), 타이웬(太原) 등 3곳의 위성발사기지를 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사, 관제, 추적, 연구개발 및 교육 훈련을 위해 광범위한 시설 및 인력 체계를 구비하고 있다.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처 우주무기 담당

보잉 B-737 AEW&C

About E-X : 알아두면 좋을 다섯 가지

지난 9월 2일, 국방부는 E-X 사업 시험평가 및 협상 대상장비로 미 보잉사의 B-737 AEW&C와 이스라엘 IAI ELTA사의 G-550 AEW&C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정부가 줄기차게 강조해 온 '협력적 자주국방'. 이 거대 프로젝트에 있어서 E-X 사업은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이 사업이 전력증강 계획의 가장 선두에 서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군이 지금까지 도입해왔던 무기체계들과는 다른, 이른바 '전략형' 무기를 들여오는 일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E-X 사업에 대해, 적어도 공군인이라면 요만큼은 알아야겠다 싶은 내용들을 딱 다섯 가지 모아봤다. 혹 밖의 지인들에게 설명할 일이 생겼을 때 잘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1. E-X 사업(E-X Program)이란?

'04년부터 '12년까지 1조 9,596억원을 들여 공중조기경보통제기(Airborne Early Warning & Control System, 줄여서 AEW&C) 4대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2. 왜 하는가?

E-X 사업은 ① 저고도 공중감시 영역을 확장하고, ② 독자적 원거리 공중통제 능력을 구비하며, ③ 지상 레이더 임무 중단 혹은 기능 저하 시 그 임무 대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공군의 지상 레이더로는 저고도로 침투하거나 산악 지형을 이용해 침투하는 항공기나 미사일을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다(지구는 둥글기 때문!). 또한, 지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교전 초기에 그 기능이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 공중에서 조기경보 기능을 수행하는 AEW&C는 이러한 두 가지 취약점을 동시에 보완해 준다.

IAI ELTA사의 G-550 AEW&C

3. 다른 나라도 많이 가지고 있나?

현재, AEW&C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NATO 포함, 12개국. 미국이 가장 많은 103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17대나 가지고 있다. 그 외에 NATO, 사우디,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이집트, 싱가포르, 대만, 칠레, 러시아 등이 공중조기경보체계를 가지고 있다. 호주와 터키가 도입 계약을 완료했으며, 우리나라와 그리스, 중국 등이 도입을 추진 중이다.

4. 기종선정은 언제, 어떻게?

대상장비로 선정된 두 기종에 대한 국외 시험평가 및 협상이 9월부터 진행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월, 조건충족장비가 선정된다. 그 다음, 조건충족장비들을 대상으로 업체간 경쟁입찰을 실시한다. 최종 기종결정은 조건충족 최저비용 기법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1)]

전력화는 '09년 2대, '11년 2대로 계획되어 있다. '09년이면 태극마크를 단 AEW&C가 우리 하늘을 누비게 되는 것이다.

5. 제안된 두 개 기종에 대해…

보잉사는 설명이 필요 없는 이 분야의 선두주자. IAI ELTA는 뛰어난 위상배열 레이더 기술을 바탕으로 보잉의 텃밭에 뛰어들었다. 대상장비 선정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제안서 평가에서는 두 기종 모두 합격점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보너스! AWACS라는 말이 꽤 익숙한데?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대명사처럼 널리 알려져 있는 AWACS는 Airborne Warning and Control System의 약자로, 美 보잉사의 E-3(B-707)에 붙여진 고유명칭이다. 이후 모체 항공기가 B-767로 바뀐 뒤에도 E-767 AWACS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영어로 표기할 때는 AEW&C라고 쓴다.

공군본부 전략기획처 소령 **곽 영 상**

B-737 AEW&C 및 G-550 AEW&C 제안 내용 비교

구 분		요구조건	보잉사	IAI ELTA사
항공기	항공기	-	B-737-700	G-550
	제작사	-	Boeing(미)	Gulfstream(미)
	임무고도	26,500ft 이상	41,000ft	41,000ft
	체공시간	6시간 이상	9시간 이상	10시간
	최대속도	300KTS 이상	340KTS	320KTS
레이더	타입	-	MESA Radar	Phased Array Radar
	제작사	-	Northrop Gruman(미)	IAI ELTA(이)
	탐지거리	좌우 : 200NM 이상 전후 : 180NM 이상	좌우 : 200NM 전후 : 186NM	좌우 : 200NM 전후 : 180NM
	탐색범위	360°	360°	360°
지상체계	임무지원체계, 임무훈련체계, 비행훈련체계, 유지보수지원체계	각 1식	각 1식	각 1식

1) 두 기종이 모두 조건충족장비로 선정될 경우, 획득비(경쟁입찰시 업체가 제출)와 확정운영유지비(국방부에서 산정)를 합산해 저가인 기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이같이 결정된 이유는 대상 기종이 주문생산방식으로 개발될 것이므로 성능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과, 예산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F-X 사업 때는 이와 달리 비용을 포함한 모든 요소를 총점화해서 평가하는 종합평가 기법을 적용했다.

칼과 붓으로 한 독립투쟁

- 백야 김좌진 장군, 만해 한용운 선생을 찾아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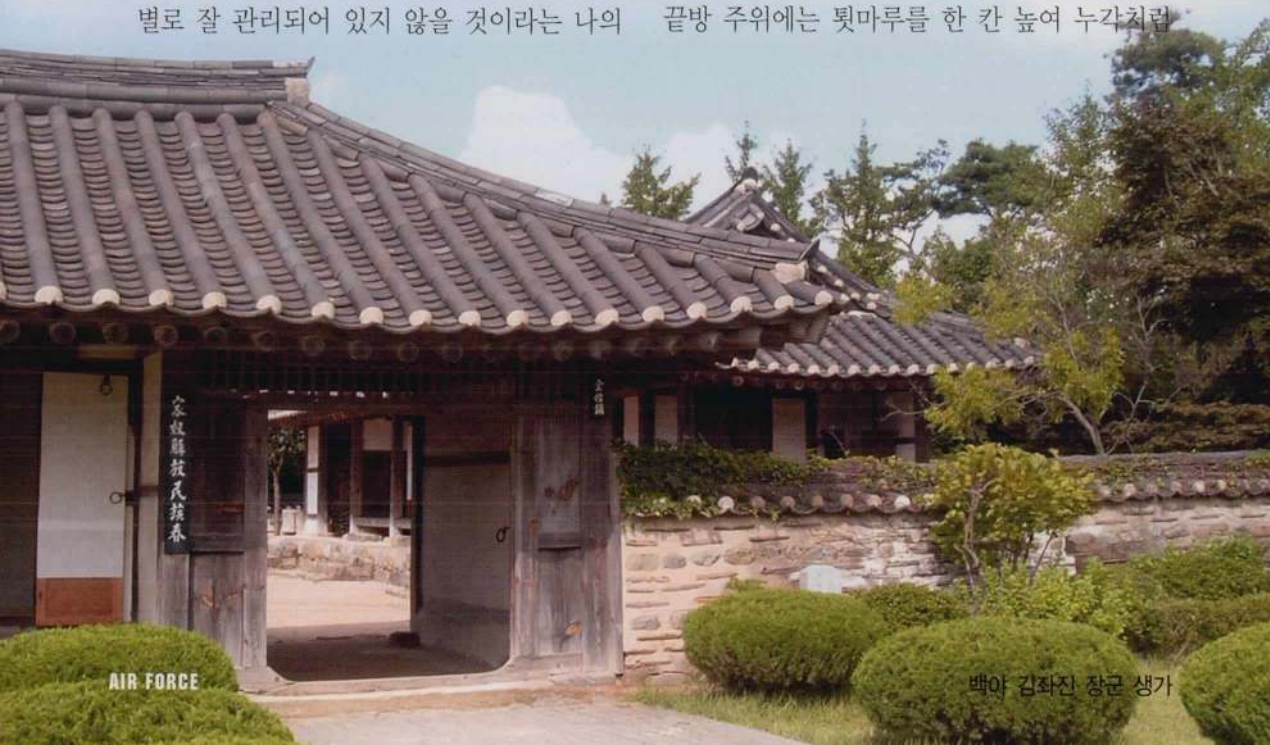
일제시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불꽃같은 삶을 살았던 대표적 무인(武人)과 문인(文人)… 백야 김좌진 장군과 만해 한용운 선생. 이 두 분의 이름을 모르는 한국인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분들이 태어나고 자란 생가가 있는 곳이 바로 옛부터 충의열사의 고장으로 이름 높았던 충남 홍성이다.

먼저 백야 김좌진 장군의 생가를 향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해미 IC에서 29번 국도를 따라 홍성 방향으로 10여 분을 가다 보면 안면도로 가는 갈림길 부근에 백야 김좌진 장군의 생가가 있다. 바로 홍성군 갈산면의 "행산리 신기마을"이다.

백야사와 기념관

별로 잘 관리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나의 상상은 도착하는 순간 바로 달라졌다. 왼편에 백야 장군이 태어나고 자란 단정해 보이는 기와집이 있고, 오른편에는 일생동안의 업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이, 앞쪽 잔디밭에는 기념비와 단간지주까지 있었다. 어느 곳 하나 관리가 소홀한 부분 없이 깨끗이 정리되어 있음이 한눈에 들어왔다. 우선 생가를 둘러보기 위해 좀더 가까이 들어가 본다. 집 대문 앞에 문패가 보이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보이는 작은 방 안에는 백야 장군 사진이 방문자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고 있다. 가옥은 안채와 사랑채, 광이 따로 있고 밖에는 마구간이 있다. 안채는 앞면 8칸, 옆면 3칸의 기와집으로 서쪽을 향하고 있었다. 왼쪽부터 2칸 부엌이 있고 아랫방과 윗방 각 1칸씩 있으며, 통칸의 대청이 있다. 방 앞으로 툇마루가 있는데, 맨 끝방 주위에는 툇마루를 한 칸 높여 누각처럼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

만들어놨다. 앞마당에는 우물이, 뒷마당에는 장독대가 있으며, 밖에는 3칸 집에 만들어진 화장실과 마구가 있다. 부엌에 있는 가마솥이나 식기류부터 마구간에 있는 말안장까지 세심하게 준비된 모습에 장군의 어릴 적 모습이나 가족들의 생활이 보이는 듯 했다.

다시 생가 대문을 나와 전시관의 회전문 안으로 들어가 본다. 전쟁기념관이나 독립기념관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담한 규모의 내부에는 청산리 전투나 노비문서소각 등을 표현한 조형물, 직접 사용하신 물건들과 서적 등이 있어 그분의 사상과 업적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오직 민족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백야 김좌진 장군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초인적인 힘과 용기, 결단성, 불굴의 투쟁정신, 국가와 민족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지닌 분이라고 표현하면 될까? 오직 민족의 독립을 위해 만주, 연해주, 국내를 넘나들며 자신과 가족의 안위와 행복마저 포기하셨던 분… 평생을 조국광복이라는 대의(大義)를 좇아 모든 희생을 감내하셨던 분이다. 죽음에 임박하였어도 "할 일이… 할 일이 너무도 많은 이 때 죽어야 하다니… 그게 한스러워서…"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지는 백야 김좌진 장군. 그를 살해한 사람은 박상실이라는 고려공산당 소속의 한인청년이었다고 하니 서글픈 마음이 밀려온다.

백야사 내부에 모셔진 김좌진 장군 초상화

백야사를 오른 편에 끼고 돌아가면 뒤쪽에 장군의 정신을 기리는 사당이 있는데, 층층이 난 계단을 올라 사당 안으로 들어가 보면, 향로 뒤 사진을 통해 흰 도포를 입은 백야 장군을 만날 수 있다. 숙연한 마음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분의 삶을 다시금 생각해 본다. 마음속에서 부끄러움이 일었다.

김좌진 장군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사당, 백야사

만해 한용운 선생의 생가

정겨운 초가, 시인의 집

주차장에서 나오니 만해 한용운 생가라는 표지판이 보인다. 이정표를 따라 늘 가던 곳인 양 차를 달려본다. 도착하는 데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양옆으로 과수원들이 옹기종기 들어선 한가로운 길에다가 안내판도 잘 되어있어 찾아가는 것은 무척이나 쉬웠다. 길이 끝나는 곳에 이르면 초가집 두어 채가 보이는데, 이곳이 바로 한용운 선생의 생가이다. 주차장을 지나자마자 오른편에는 생가 터 안내문, 왼편에는 초가로 지어진 관리사무소가 있다. 싸릿대 울타리로 복원된 만해 선생의 생가는 초가지붕을 얹었으며 방 2칸, 부엌 1칸으로 구성된 일자형 구조를 지니고 있다.

포근해 보이는 짚으로 덮인 지붕에 싸릿대 울타리 사이로 언뜻 보이는 방문을 보고 있노라면, 만해 선생의 아름다운 시어(詩語)들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집이란 생각이 든다. '한용운'이란 문패는 만해 선생이 마치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듯한 감상에 빠져들게 만들기도 했다. 댓돌이며 툇마루가 한없이 정겹고, 우물과 장독대를 돌아 집 뒤 야산 언덕배기를 올려다보면 적송과 조릿대가 자란다. 슬쩍 방안을 기웃거리자니 선생의 영정과 앉은뱅이 책상 하나가 고즈넉이 방문자들을 맞이한다. 부엌 옆은 장작을 쌓아두는 헛간이고 사랑방 옆은 절구통과 맷돌이 보관된 헛간이다.

마당을 둘러보면 작은 연못과 정자가 들어서 있다. 오석에 새겨진 만해의 시 '나룻배와 행인'은 방문자들의 발걸음을 잠시 그 자리에 묶어둔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한용운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만해사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어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낡어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승려로, 시인으로, 독립투사로

짧은 시를 통해 일제에 대한 울분을 강하고도 아름답게 표현한 만해 한용운 선생! 이 시를 통해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된다. 만해 선생은 이집에서 유년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되시고는 세상을 벗어나 불문에 입도, 산새를 벗삼아 승려의 삶을 사셨다.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 계시기는 했지만 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만은 너무나 커서 국운이 기울어지자 독립운동에 투신, 1919년 3월 1일에는 민족대표 33인의 한 분으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옥고를 치르면서도 '독립의 서'를 작성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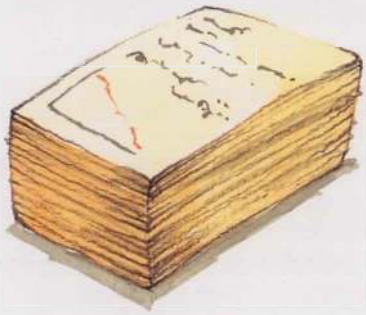
그분의 모습은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사당 '만해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위패와 영정을 보면서 아름다운 시인 만해 선생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발걸음을 돌렸다. 사당 전면에 있는 관리사무실에 계시는 할아버지와 한참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돌아오는 길에는 할아버지의 선물인 시집 〈님의 침묵〉을 나도 모르게 꼬옥 안고 있었다.

제20전투비행단 중위 **권 영 란**

빈민굴의 선생님

그림 : 김영은

오래 전,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했습니다. 한 그룹의 연구원들을 빈민굴로 보내, 그 곳에 사는 12~16세 청소년들을 만나보게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경력과 환경들을 상세히 조사하여, 그들이 장차 '건전한 삶'을 살 확률을 예측해 보도록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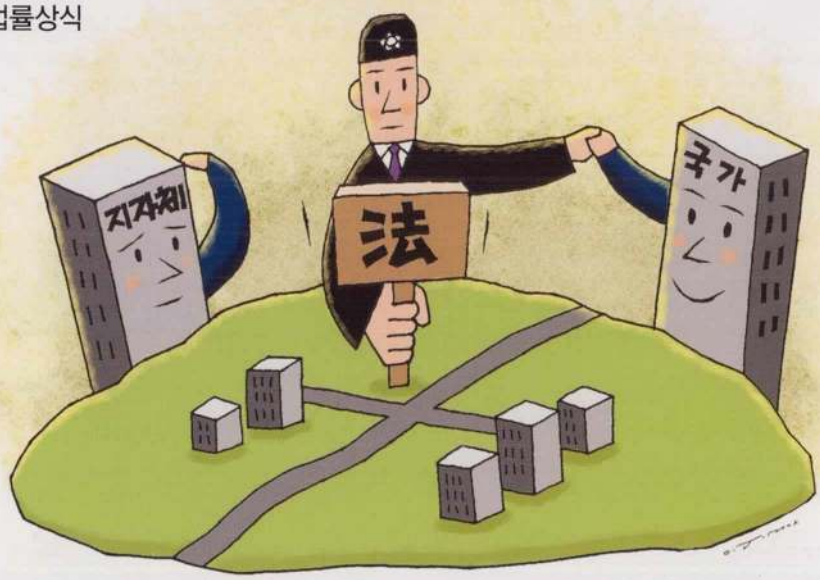
연구원들은 상세한 조사와 면담 끝에 빈민굴 청소년들의 90%가 장차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암담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25년 후, 또 다른 연구원들이 그 빈민굴을 다시 찾아가 과거의 예측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들 중 단지 4명만이 교도소 경험을 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훌륭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대부분이 한 여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범죄의 온상에서 자란 가망없는 청소년들의 삶이 어떻게 해서 변하게 되었을까?

연구원들은 노부인이 된 그 선생님을 찾아가 "어떻게 해서 청소년들에게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노부인은 "아니오, 난 그 애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절을 곰곰이 회상해보더니 "난 그저 그 애들을 사랑했었지..."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공(公)기관 · 단체 사이의 법률문제

최근 군 내부 법률관계에서 두드러진 점은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 과거에는 군 장병들이나 민간인들의 민원부터 시작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대부분의 법적인 문제였으나 사회가 다원화되고 분화되면서 새로운 법률문제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국가기관끼리의 법률문제, 또는 군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법률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소유권과 사용권은 다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도로를 내기 위해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나 공군부대가 공항부지의 사용권 일부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넘겨받기 위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빈번한 주제가 토지나 시설물에 대한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하여 오해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또, 국방용지는 국방부 소유의 땅이라느니, 서울시의 땅이 국가 것이 아니냐는 등 상식차원에서 잘못 알고 있는 사항도 많다.

토지나 시설물에 대한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뿐이며 그 나머지는 모두 무주물(無主物)이 된다. 그 중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등은 편의상 그 관리청을 지정하여 분류하고 있을 뿐이다. 이 때 어느 부서 등이 그 토지를 이용, 관리할 것이냐는 재정경제부가 정한다.

소유권 이전을 위한 협의 · 요청 절차

예를 들어, 국방용지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땅으로서 국방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는 땅이라는 뜻이며, 이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내 다른 부서 등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의 협의를 거치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시 총괄청인 재경부장관의 재정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건설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땅에 대한 이용권을 공군부대에서 얻고 싶다면 관리권한을 국방부에 이전(이를 관리환이라 한다.)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 산하 실무 관리관청에 협의 요청하여야 하며 거절할 경우 재경부장관의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엄연히 다른 재정단체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르다. 국가의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엄격히 구별되며,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국가의 보조금이나 예산 협조를 받기는 하지만 회계도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때문에 최근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산을 놓고 다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땅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기본이요, 심하게는 부동산세의 일부를 국가가 가져가야 한다고 다툰다든지, 해당 지역에 사고가 있을 시 그 처리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다투는 것도 다반사이다.

과거 어느 지역이 태풍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 있는 부대의 군인에 대하여 국방부 소속이므로 국가가 그 재해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국가에 비용분담을 요구하였고 국가는 예산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는 등의 다툼이 있었던 경우도 있다. 이렇듯 최근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법률관계가 매우 엄격한 법리해석이나 검토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실무자들은 관행에 따른 법률해석이나 실무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에 따른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 특이한 법률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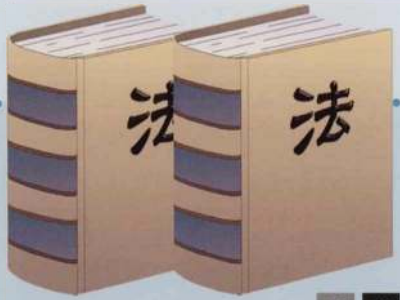
한편 빈번히 등장하는 도로 등의 법률관계는 특이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한다. 소유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A의 소유라 하더라도 A는 이를 자신이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법률에 의하여 그 이용권한은 고속도로 및 국도인 경우는 국가가, 지방도인 경우는 대부분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따라서 도로라 해서 모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땅은 아니다. 다만, 그 이용권한만 국가나 지자체에 있을 뿐이다. 이러한 법리는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도 유사한데, 의외로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국유재산관련 실무자들도 많다.

공군이 직면한 법률문제, 권리확보도 아는 만큼

공군이 직면하고 해결해야 할 법률문제들은 매우 많다. 그러나 개중에는 대비할 수 있는 것과 신중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 상당하다. 현대는 경쟁의 시대이고 이는 국가기관이라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공군인들이 국가나 군에 관련된 일반적인 법률지식을 조금씩 알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주장할 것은 주장하여 손해를 보지 않게 되고, 허용해야 할 것은 허용하여 불필요한 인력이나 자원의 낭비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제18전투비행단 법무실장 대위 **지 귀 연**



감기와 독감

의무실에서 진료를 하다보면 환자들을 통해 계절이 바뀌는 것을 몸으로 느낄 때가 있는데 감기가 바로 그렇다. 여름 내내 덥고 습한 날씨로 생긴 무좀 환자들을 상대하다가 바람이 조금만 선선해지면 무좀 환자들은 급격히 줄어들고 그때부터 감기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한다.

감기야 젊은 성인 남자도 1년에 서너 번 정도씩 걸릴 정도로 흔한 질환이라 대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 군인 정신을 외치며 묵묵히 참다가는 뜻하지 않은 합병증에 걸려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감기와 전혀 다른 질병'인 독감에 걸려 온몸이 끊어질 듯하고 의식마저 몽롱한 경험을 하기도 한다. 이번 글에서는 사람과 가장 친한 질병인 감기에 대해 알아보고 독감과의 구별법과 예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감기, 약 먹어 낫는 병이 아니다

감기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감기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라는 생각이다. 불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인류는 감기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약을 개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감기약을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고, 먹지 않으면 7일이나 간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 감기약은 단지 증상만을 호전시킬 뿐이다. 감기를 완치하는 약이 없는 이유는 감기의 원인이 바이러스인 탓이 크지만, 그 바이러스가 한 가지 특정한 것이 아닌 수천 종에 달하고, 그마저도 끊임없이 변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류는 복제 양을 만드는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도 감기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치료제나 예방백신을 개발하지 못했다. 물론 감기가 가벼운 병이 아니라 치명적인 질병이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감기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기가 똑 떨어지는 약을 지어달라거나 독하게 지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고, 어느 병원에 가면 잘 낫는다더라하는 얘기까지 나돌게 된다. 하지만, 감기는 약을 먹지 않아도 대개 '7일이나 걸려서' 낫는다.

"고열이 나거나 심한 두통, 가슴의 통증, 진한 누런 콧물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경우, 숨쉬기가 답답한 경우, 귀가 아프거나 귀에서 물이 나오는 경우 등은 감기로 인한 합병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진찰을 받아야 한다."

감기에 걸렸다면 이렇게!

모든 불안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만큼, 감기의 진행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보다 여유 있게 질병에 대처할 수 있게 되고, 굳이 필요 없는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다양한 만큼 그 증상도 다양하긴 하지만 대개 초기에는 맑은 콧물과 코막힘, 목의 통증을 주로 호소하고 미열과 두통이 나타나기도 한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 초기의 맑은 콧물이 진해지면서 노랗게 되고(양은 줄고) 기침이 많아지게 되는데, 기침이 많아지는 이유는 누런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면서 목을 자극하는 것이 한가지 이유이고, 또 한가지는 기도의 염증으로 인한 과민성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밤에 기침이 심하다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고, 다른 증상은 다 좋아졌는데 기침만 오래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도의 과민성은 기도의 염증이 호전되고, 정상 세포들로 채워진 이후에야 사라지므로 기침이 1~2주 이상 갈 때도 많다. 대개 이러한 시기에 병원을 찾게 되면 세밀한 진찰과 병력 청취로 감기의 합병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환자를 안심시키는 것이 의사들이 하는 일이다. 이때는 물을 많이 마시고 실내의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며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물론 이 시기에 담배를 피우는 것은 기침을 악화시키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하지만 고열이 나거나 심한 두통, 가슴의 통증, 진한 누런 콧물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경우, 숨쉬기가 답답한 경우, 귀가 아프거나 귀에서 물이 나오는 경우 등은 감기로 인한 합병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진찰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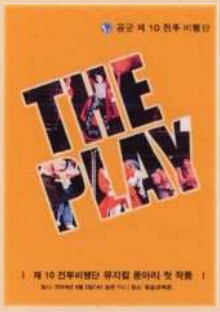
독감은 감기와 다른 질병

독감은 독한 감기가 아니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다른 질병**이다. 증상은 감기보다 심해서 고열과 오한, 근육통 등을 호소하는데, 주기적으로 유행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무서운 질병이다. 특히, 면역력이 취약한 노약자나 만성 호흡기 질환자, 당뇨병/암환자가 걸리게 되면 치명적이므로 이러한 고위험군에서는 예방 접종을 통해 질병의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올해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금년에는 A형 뉴 칼레도니아 주와 푸지안 주, B형 상하이 주가 유행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우선 접종대상으로는 50세 이상 성인, 생후 6개월~23개월 소아, 임신부, 만성 심폐질환자, 집단시설수용자, 당뇨 · 암 등 만성질환자, 의료인 등 전파매개자가 해당되고, 9월에서 12월 사이에 접종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대상을 제한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백신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집단 생활을 하는 군에서도 백신 접종을 선택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감기와는 달리 독감은 발병 후 48시간 내에 약을 복용하면 증상과 발병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약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독감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좋겠다.

제3방공포병여단 의무실장 대위 **이 철 민**

첫번째 작품
"The Play"
공연장면



공군 최초의 뮤지컬 공연팀

『쉘위 댄스』 결성!

그 6개월간의 연출일지.

2004년 9월 2일 19시 제10전투비행단 기지강당

그것은 병영문화의 새로운 시도였고, 또 하나의 도약이었다.

그 새로운 도약의 주역은 바로 지난 4월 창단 후 6개월만에 처녀작 〈THE PLAY〉를 무대에 올린 제10전투비행단 항공전자정비대대(이하 10비 항전대대) 뮤지컬 동아리 『Players』 구성원들.

※ 註 : 뮤지컬 〈The Play〉의 성공적인 공연을 기념으로 Shall We Dance에서 Players로 동아리 명(名)을 변경

동아리 목표 '행복한 참군인'에서 알 수 있듯, 무대에 오른 동아리 회원들의 얼굴엔 행복한 표정과 건강한 미소가 배어있다.

2004년 4월 9일 항전대대 연극 동아리 『쉘위 댄스』 탄생

작년 말, 단장님께서 부임하신 이래 시작된 참군인 행복프로그램은 그 주요과제 중 하나로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선정, 장병들의 자유로운 동아리 활동을 위한 여건조성에 힘쓰게 된다. 많은 동아리들이 이 바람을 타고 창설·확장되었는데, 뮤지컬 동아리 〈쉘위 댄스〉의 탄생도 여기의 연장선에 있었던 것.

뮤지컬 공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배우, 무대, 관객이 필요하다

일단, 무대는 기지강당으로 정해지고, 관객은 10비 장병들로 확정되었다. 군부대 제반시설과 인원의 확보라는 장점 때문에 시작과 함께, 2가지 요소는 충족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배우를 뽑는 일이 급선무.

출발을 항전대대에서 했기 때문에, 2003년 10비 군가경연대회에서 항전대대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끼' 있는 멤버들이 동아리 주요 구성원으로 다시 뭉쳤다. 총 9명의 인원이 선발되었는데 춤, 노래, 연기, 조명이나 음향장비사용능력 등에 재능을 가진 장병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그 안에는 KBS '청춘, 신고합니다!'에 출연해 장기자랑 코너에서 1위를 차지한 박병주 병장, 라디오 PD가 되는 것이 꿈인 안정효 상병, 교회에서 무대스탭 경험이 있는 이광규 하사, 브레이크 댄스 동아리 출신인 조성연 상병, 노래를 잘하는 임대은 병장과 조기호 상병, 열정이 남다른(^^;) 박민철 병장과 윤여승 상병, 그리고 한대수 상병이 포함되어 있었다.

인원선출 후 5월말까지는 배우들의 기본기를 다지기 위한 훈련이 계속되었다. 연극개론, 발음과 발성훈련, 억양훈련, 참고작품 감상, 성격표현 등의 수업이 이어졌다.

동아리 회원들의 넘치는 열정과 의욕, 대대장님의 후원과 관심 속에 공연계획은 계속 추진되었다.

대작(大作) The Play에 도전하다

계획이 구체화되어 가자 공연팀은 이제 작품선정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여군장병이 거의 없는 대대의 사정상 남자들만 출연하는 작품을 하거나 여장을 하는 것 중 하나를 택해야 했던 것.

새옹지마(塞翁之馬)라 했던가. 문제는 의외의 곳에서 풀린다.

6월 중순경에 든든한 응원군이 생겼다. 별로 기대하지 않고, 부탁해본 프로 여배우들의 출연건이 잘 성사된 것. 무보수의 일이었지만, 여배우들이 평소 한번쯤 군대에서 공연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일이 잘 풀렸다.

프로 여배우들의 섭외 성사에 용기를 얻어 위험부담은 조금 컸지만, 대작인 The Play에 도전하기로 했다. 작품을 선정해 상부에 보고하고 나서, 과연 이 작품을 무대에 올릴만한 지원이 가능할지 걱정이 되었다.

작품의 스케일이 큰 만큼 우선 조명, 음향장비 등을 대여할 돈이 필요했다. 이 고민거리는 정훈실장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나머지 엠프와 프로젝터, 노트북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장비는 정보통신대대, 야전정비대대, 정훈실, 시설대대 등에서 협조받았다. 그렇게 해서 공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갖추어 나갔다. 제10전투비행단의 놀라운 지원과 업무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다.

2004년 9월 2일 19시, 대망의 막이 오르다

배우들은 연습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량으로 연기에 임했다. 정말 실전에 강한 전사들이었다. 공연은 잘 진행되었고, 2막에 이르자 관객들은 힘찬 박수와 호응으로 답해주었다. 정말 일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처음 뮤지컬 동아리를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모습들이었다.

'과연 군대에서 할 수 있을까'란 의구심과 다른 한편으론 '군대에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란 기대감이 그것이었다.

하지만, 공연은 성공적이었고, 앞으로도 뮤지컬 동아리는 공연을 계속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연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단장님과 부대 장병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제10전투비행단 중위 **박 성 균**

공연전 분장을 마친 동아리 회원들

제19회 공군창작전
부문별 대상 수상작

장병들의 정서함양과 여가선용, 창의성 개발을 통해 참신한 공군문화를 창달해 온 공군 창작전이 올해로 19회를 맞이했다. 올해에도 한국화, 서양화, 서예, 사진, 프라모델 등 총 5개 부문에 712점이 응모하는 대 성황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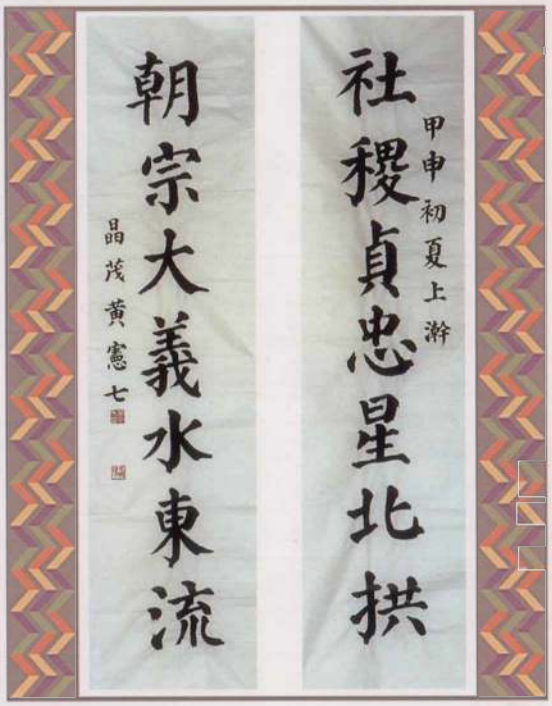
전문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부문별 대상작품들을 살펴보자.

한국화 대상 **군화 닦는 사나이**

제10전투비행단/일병 한 성 환

서양화 대상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대비하라**

제19전투비행단/중사 송 중 현



서예 대상 **충 성**

제3훈련비행단/원사 황 헌 칠

사진 대상 **망중한**

제73기상전대/중사 강 세 훈

프라모델 대상 **Ready for Battle**

제10전투비행단/상사 정 연 일

10월의 공군 약사

공군 창군(1949)

공군은 1948년 5월 5일 경기도 고양군 수색에서 통위부(현 국방부) 직할 항공부대로 창설되어 동년 9월 미군으로부터 L-4 연락기 10대를 인수하여 여의도 비행장에서 비행훈련을 실시하였다.

동년 12월 1일 국군조직법에 의거 육 · 해군이 창설됨에 따라 동 부대를 육군항공사령부로 개편하고 1949년 1월 항공간부 육성을 위한 항공사관학교 창설, 동년 6월 육군본부 항공국 신설 등을 통해 공군 창군의 토대를 마련한다. 그리고 마침내 1949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254호에 의거 육군에서 독립하여 병력 1,100명, 항공기 20대의 전력으로 공군을 창군하였다.

서울 에어쇼 '96(1996)

21세기 항공우주선진국 진입 기틀을 마련하고 공군홍보 및 대국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공군 주최로 열린 국내 최초의 국제에어쇼인 Seoul Air Show '96 행사가 21개 국가 214개 항공관련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서울기지에서 개최되었다. 1996년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의 행사 기간 동안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시범 및 곡예비행, 항공우주 심포지엄 등이 실시되었으며, 관람객 552,000명이 참관하였다.

- 10. 1 공군 창군(1949)
- 10. 2 공군 창군 50주년 경축 기념행사(1999)
- 10. 6 A-37 항공기 도입(1976)
- 10. 7 제1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 개최(1979)
- 10. 11 한국공군 F-51 첫 단독 출격 개시(1951)
- 10. 11 공군본부 헌병감실 신설(1979)
- 10. 14 L-5 항공기 도입(1948)
- 10. 14 공군 창군 50주년기념 공군 화력시범(1999, 승진사격장)
- 10. 17 한 · 월남간 공수임무 수행부대 은마부대 창설(1966)
- 10. 20 제31전술통제비행전대 창설(1958)
- 10. 21 여순 반란사건 진압작전 비행부대 출동(1948)
- 10. 21 서울 에어쇼 '96 개막(1996)
- 10. 24 공군비행단 평양 미림기지로 전진(1950)

태극기 게양법,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10월은 다른 달에 비해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이 많은 달이다(물론 군부대나 관공서, 학교 등은 연중 내내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지만). 전 국적으로 태극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10월에만도 3일이나 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태극기의 유래나 올바른 게양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태극기의 유래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태극기를 사용해 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조선왕조 때 어기(御旗)라 하여 8괘로 된 태극기를 대궐에서 사용하였으며, 1874년 청국(淸國) 주재 미국 공사가 4괘로 그려진 태극기를 청국에 소개, 청국 '통상장정'이라는 책 속에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이후, 1882년 일본 수신사 행렬에서 공식적으로 태극기를 처음 사용하였고, 1883년(고종 20년) 음력 1월 27일에는 태극기를 대한제국의 국기로 사용토록 정식 왕명으로 반포, 사용하게 되었다.

태극기 게양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국경일, 1월 1일, 국군의 날, 한글날, 현충일(조기게양), 국장기간(조기게양), 국민장일(조기게양), 정부가 따로 지칭하는 날 등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날(지방자치구역에 한함)에도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태극기 게양법

태극기의 게양은 1976년 10월 4일, 국무총리 훈령으로 국기게양식 및 강하식을 공포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1996년부터는 심한 비, 바람 등으로 훼손되거나 존엄성이 유지되기 힘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들이 국기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24시간 게양도 가능하게 하였다.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은 건물마다 여러 방법이 있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에 게양할 경우, 밖에서 보기에 대문과 베란다의 왼편(혹은 중앙)에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 건물은 옥상의 중앙 혹은 전면 지상의 중앙, 차양시설 위 중앙 혹은 좌측에 게양한다. 실내에 게양할 때는 깃대에 의한 게양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이나 관리적인 측면 또는 실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깃면 만을 벽면에 게시할 수 있다.

이처럼,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법을 숙지하여, 때와 장소를 가려 올바르게 게양하도록 하자.

공군본부 중위 **정 연 석**

10월에 가 볼 만한 문화행사

한글다다展

한국 거리를 가득 메운 외국어 간판들. 세계적으로 가장 과학적이고 뛰어난 문자인 '한글'을 가졌음에도 우리 국민들의 한글에 대한 자부심과 인식수준은 무척 낮다.

오히려 외국사람들이 한글의 구성이나 글맵시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 요즘, 서울 『쌈지 스페이스』에서는 한글 서체 개발과 한글 타이포그래피에 앞장서 온 안상수 교수를 필두로 **한글다다展**을 개최한다.

이 전시는 안상수 교수가 초대한 20~35세의 신세대 타이포그래피 디자이너와 순수예술작가 20인의 작업으로 구성된다.

참여작가들은 한글을 모티브로 포스터 디자인에서부터 하이 테크놀러지 설치미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한글을 탐구하고 한글서체를 매개로 한 새로운 표현방식의 확장을 시도한다.

이번 전시는 차세대작가들의 한글작품전시를 통해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세계 그 어떤 문자보다 우수한 우리 한글을 다시금 되새겨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유승호 - pen on wall

- **서울 쌈지 스페이스에서 11월 5일까지, 관람 무료**
- **문의전화 : 02-3142-1695**

제9회 부산국제영화제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국제 영화제 중 최고의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선선한 가을 바람을 타고 다시 돌아왔다.

이번 달 7일 개막하는 제9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총 63개국 266편의 영화가 초청되어 국내영화팬들의 눈을 즐겁게 해줄 것이다.

초청작 「boats out of watermellon」 - turkey

10월 7일부터 15일까지 부산영화제 트레이드 마크인 수영만 야외 상영장을 비롯, 부산 곳곳의 17개 상영관에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엔 국내 58편과 아시아 102편, 월드 106편이 상영되며, 특히 초청작 가운데 월드 프리미어(World Premiere : 세계 각국의 배급사와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사회)도 39편이나 포함되어 있어 부산국제영화제가 명실공히 아시아 최고의 쇼케이스라는 명성을 입증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경쟁부문인 뉴커런츠를 비롯해 모두 9개부문으로 나눠 열리며 이벤트

또한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특히, 아시아 각국의 장편 애니메이션을 감상할 수 있는 『애니아시아』나, 그리스영화의 거장 '테오 앙겔로풀로스' 의 회고전(그의 명작 12편이 상영된다) 등은 주목할 만한 볼거리다.

이번 영화제에는 초청손님의 명단도 화려한데, 우리가 많이 알고있는 왕가위 감독과 일본의 이와이 슌지 감독, 대만의 허우 샤오시엔 감독, 「영웅」과 「연인」으로 잘 알려진 배우 장쯔이 등이 영화제를 찾을 계획이다.

예매방법이나 영화시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홈페이지 www.piff.org를 방문하면 된다.

한국의 자랑스런 국가대표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의 열기를 몸소 느끼고 싶지 않은가? 기회는 1년에 한번 뿐이다.

- **부산 수영만 야외상영장 외 17개 상영관에서 10월 7일에서 15일까지**
- **관람 요금 : 유료입장권 5,000원**
- **공식 홈페이지 : www.piff.org**

국립중앙박물관 - 특집전시 '고구려'

집안 통구 12호분 고분벽화 동벽모사도

고구려라는 단어를 들으면 당신의 피는 끓어오르는가?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기 위한 소위 '동북공정' 이라는 역사왜곡 프로젝트가 밝혀지고 중국 중앙매체들이 고구려사에 관한 특집을 집중 보도하고 있는 요즘,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우리민족의 위대한 유산인 고구려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하여 특별전시 **'고구려展'** 이 열린다.

그 동안 고구려 유적 · 유물은 북한과 중국에 편재되어있어 전시유물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에 아차산성과 한강 임진강 유역에서 몇몇 유물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주로 토기에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참모습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경남의령에서 출토된 국보119호 연가 7년명 고구려 금동여래입상, 집안 통구 12호분 동벽모사도 등 다양한 종류의 관련 유물 83점을 선보임으로써 우수한 고구려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출품자료 가운데에는 백제, 신라, 가야지역의 유적에서 발견된 고구려의 유물도 있어서 고구려문화가 주변 여러 나라에 끼친 영향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의 기상과 제대로 된 우리 고구려의 역사를 눈으로 체험하고 싶다면 이번 전시는 큰 의미가 될 것이다.

- **국립중앙박물관 2층 고구려실에서 10월 17일까지**
- **관람요금 : 일반 700원, 군인 300원**
- **관람시간 : 09:00~19:00**
- **문의전화 : 02-2077-9463**

제2방공포병여단 병장 **지 인 홍**

행동하라, 그러면 즐거울 것이다

'띵동~'

조용하던 핸드폰이 문자메시지의 도착을 알려왔다.

"이번 달, 자원봉사자가 부족합니다…"로 시작한 메시지는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는 문장으로 끝맺으며 핸드폰 액정을 가득 채웠다.

흔히 오는 스팸 문자처럼 별 생각 없이 삭제 버튼을 눌러버리면서, '아차!! 월말 무렵이면 혹시나 시간을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 메시지 삭제에 대한 뒤늦은 후회를 한다.

언제인지, 하다못해 장소가 어디인지만이라도 슬쩍 볼걸…

봉사(奉仕)라…

봉사의 원래 뜻은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일함' 이라고 한다.

그래서 봉사는 '봉사를 하다' 는 의미의 '~하다' 형 자동사와 함께 쓰이게 되는데, 때문에 반드시 동사(動詞)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을 개시하라는 것인게다.

2년 전, 방송을 하다가 알게 된 친구가 있다. 나보다 한 손 이상의 나이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가 특별히 와 닿는 이유는 그가 제법 큰 자원봉사 모임을 이끌고 있는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이다.

"나, 움직이지 못해요"

침대에 누운 그와의 첫 만남, 첫 인사였다.

척추 장애로 인한 전신마비.

10여년 전, 스무살 평범한 청년이던 그는 교통사고로 20일의 혼수상태, 그리고 수십번의 수술을 거치고, 결국은 휠체어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혼자서는 고개를 돌리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그가 컴퓨터를 배우고, 어렵게 배운 컴퓨터를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원 봉사 모임을 만들어 쉴 틈 없이 봉사 활동

문제는 알고는 있지만 실천을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못하지 않은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면 우리 주변에는
작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방송인들에게 호기심과 존경으로 와 닿았고, 때문에 제법 여러 번 매스컴을 타기도 했다.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는 그렇게 한달에 몇 번씩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시설들을 찾아가 독감 주사를 놔주기도 하고, 소년소녀 가장들의 생활을 도와주고 있었다. 물론 그가 하는 일이란, 실제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 그들이 자원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올해 초에는 독감주사차 방문했던 시설에서 독감이 옮아와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를 겪기도 했고 여전히, 골수염으로 몇 개의 갈비뼈를 드러내고, 욕창과 콩팥의 종양으로 인해 하루에도 수십 개의 약을 먹어야만 한다.

자칫하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의 활동에 대해 경탄을 하면서도 안쓰럽고 조마조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다. 몸이 허락하는 한,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그에게 봉사란 생명을 이어가는 원천임을 알고는 있지만 비겁하게도 나는, 그의 불안한 하루하루를 도무지 가까이서 지켜볼 수 없어서 연락을 뜸하게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꼬박꼬박 잊지 않고 시설 방문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늘 문자 연락을 - 것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임을 알지만 - 해주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 아니, 바쁘다는 이유로 함께 하지 못해 많이 미안하기도 하다.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리 바빴던 것 같지도 않다. 어쩌면 바쁘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았을 뿐 마음이 그의 도움 요청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꼭, 돈이 많은 사람, 시간의 여유가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문제는 알고는 있지만 실천을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못하지 않은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면 우리 주변에는 작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다.

기약 없는 마음과 준비보다는 이제, 움직일 때다!

방송작가 **함 은 선**

거미숲

'그 숲에 가면 길을 잃는다'

송일곤 감독의 두 번째 작품

〈거미숲〉은 현재 한국의 젊은 감독 중에서 가장 촉망받는 인물 중 하나인 송일곤 감독의 두 번째 작품이다. 단편영화 제작 시절부터 재능을 인정받은 그는 데뷔작 〈꽃섬〉에서 마음 속 응어리진 아픔을 씻어내는 세 여인의 여행을 섬세한 아름다움의 시선으로 바라봤다. 예사롭지 않은 장편 데뷔작을 내놓았던 이 감독의 신작은 다소 뜻밖에도 '미스터리 스릴러'의 외피를 둘러싼 장르의 영화다. 하지만 장르의 숲을 통과하는 길은 보편적인 스릴러보다는 매혹적이면서도, 멀고 험하다.

미스터리 사건에 휘말린 '미스터리 극장'의 PD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사는 강민(감우성)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취재하는 '미스터리 극장'의 PD다. 어느 날 그는 직장 상사 최 국장으로부터 사표를 쓰라는 갑작스러운 통보와 함께 '거미숲'이라는 곳을 취재해 보라는 권유를 받게 된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거미숲 미스터리에 관해 제보한 여자 민수인(서정)을 찾아간다. 거미숲 근처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민수인은 거미숲에 기억되지 못한 영혼들이 산다며 슬픈 전설 하나를 들려준다. 강민은 그 전설을 취재하러 거미숲에 들어가는데 숲의 산장에서 시체 2구를 발견하게 된다. 놀랍게도 죽은 두 사람은 그가 요즘 만나고 있는 황수영 아나운서(강경헌)와 최 국장이었다.

숲 속에서, 그리고 기억 속에서 방황하다

〈거미숲〉은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는 드라마 중심의 영화는 아니다. 영화의 이야기 구조는 강민의 방황처럼 어지럽고, '거미숲'이라는 모티프처럼 혼란스럽다. '그 숲에 가면 길을 잃는다'는 카피처럼 강민이 거미숲에 들어간 순간 시간과 공간이 뒤죽박죽된다. 그 숲 속에서 강민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희미한 기억의 실타래만을 가지고 있을 뿐, 기억에

대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수 없다. 관객에게 주어진 실마리의 실타래들도 조각조각 끊어져 있다. 중요한 조각들은 시간 순서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 현재는 과거와 중첩된다. 강민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 중 어디까지가 정말 사실인지도 불투명하다. 기억의 진위는 물론,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종류의 것들마저도 거미숲 안에서는 뒤섞인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강민의 분열적인 인격 내면을 해부할 때 해답의 빛이 희미하게 비친다. 강민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죄의식 때문이다.

죄의식과 기억, 그 근원에 대한 탐구

송일곤 감독은 〈거미숲〉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죄와 벌〉에서 모티프를 빌려온 영화"라고 설명했다.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에 이끌려 결국 자백하는 것처럼 〈거미숲〉은 우리 기억을 지배하는 죄의 근원에 대해 탐구한다. 다른 점은 〈죄와 벌〉이 영웅이 되려고 하는 초인 의식에 사로잡힌 라스콜리니코프에 초점을 맞춘다면, 〈거미숲〉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봐버린 불운한 '오르페우스'처럼 개인의 사적인 기억과 죄의식 근원에 대해 탐구하는 영화다.

죄의식에 의한 기억의 변형

송일곤 감독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쓰기 전에 정신과 의사들을 만나 인간의 기억이 죄의식에 따라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조사했다. 감독의 말대로 '낮에는 들어가고 싶지만 밤이 되면 빨리 나오고 싶은' 숲이라는 공간은 여기서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또는 선과 악을 발가벗기는 동시에 다시 해체하는 곳이 된다. 즉, '거미숲'에서는 선과 악이라는 구분이 무의미해지며 그곳은 상처를 치유하고 정화하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운명을 관장하는 실을 짜는 '거미'는 그들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으며, 그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은 시간은 다시 그들을 치유한다. 주인공 감우성이 "시나리오 읽을 때부터 강민이란 사람을 측은하게 생각했다. 관객이 최대한 강민의 내면을 공감하길 바라면서 연기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강민은 많은 비밀과 기억을 속으로 감추고 있는 인물로 비쳐지는데, 감우성과 송일곤 감독은 애초부터 '강민'이라는 캐릭터의 감정을 꾹 누르고 있다가 마지막에 터뜨리자고 합의했다.

거미숲으로의 유혹

장편 데뷔작 〈꽃섬〉으로 상처와 치유 여정에 관해 얘기했던 송일곤 감독은 더 많은 관객과 소통해야겠다는 생각에 〈거미숲〉을 좀 더 친근한 장르 영화, 관객이 퍼즐처럼 풀어볼 수 있는 미스터리영화로 만들려고 했다. 15억 원이라는 제작비가 무색할 정도로 음울하고 으스스한 숲의 이미지는 시종일관 영화를 지배하는 어떤 '정조'를 창조한다. 빠른 편집과 촬영은 가파른 호흡에 속도감을 부여했다.

〈거미숲〉은 스릴러와 미스터리 장르의 외피를 두른 채 관객들에게 이렇게 미로처럼 엉켜 있는 거미숲으로 들어오라고 유혹한다.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거미숲에서 길을 잃지 않고 실타래를 푸는 것은 관객의 몫이다.

〈죄와 벌〉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인간의 모든 비밀은 인쇄지 2장 안에 모두 담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100분의 러닝 타임 속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

영화 속 대사처럼 숲에 모든 비밀이 있으며 또한 답도 있다. 물론 정답은 없다.

영화평론가 **김 지 훈**

다빈치 코드

- 댐 브라운 지음 -

〈다빈치 코드〉는 미국에서만 700만부 이상 팔리며 평범한 교사였던 댐 브라운을 시드니 셀던과 같은 유명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했다. 이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10여 개국에 번역 소개되어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한 이 책은 한국에서도 판매 순위 1~2위를 다투며 기염을 토하고 있다.

한 편의 영화 같은 소설

전 세계적으로 열광과 논란을 함께 불러오고 있는 책 〈다빈치 코드〉는 루브르 박물관장이 살해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비트루비우스의 인체비례'의 형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어간 자크 소니에르의 '상징'은 두 사람의 암호 전문가에 의해 그 비밀이 풀려나간다.

'미래의 소설은 모두 추리 소설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대변하듯 이 책은 상당히 괜찮은 추리소설의 기법을 착용하고 있지만 철저한 '헐리우드 영화식' 화법을 가진다는 점에서 기존 추리소설과 다른 점을 보인다. 〈다빈치 코드〉는 이미 영화화 할 것을 기획 단계부터 작가가 염두에 두었고 그에 걸맞게 빠른 이야기 진행과 사실적인 묘사로 책을 덮고 나면 마치 흥미진진한 잘 만들어진 영화를 보고 난 느낌을 준다.

내용에 대한 소설 밖 논쟁도 흥미진진

이 책의 또 한 가지 재미는 소설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다. 이 책의 주 소재는 초기 기독교 역사라는 '그림자 역사'의 진위 여부이며 예수 생존 무렵의 기독교 역사이다. '예수는 인간이었으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아내이고 예수의 아이까지 낳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다빈치 코드〉는 작가가 이 소설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주장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안티 다빈치 코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들이 또 다른 인기를 끌만큼 논쟁은 현재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다빈치 코드〉가 2004년 가을에 자신의 이름을 한국 베스트셀러에 올려놓을 것은 확실해 보인다. 독자는 편한 마음으로 이 책을 열고 모험을 즐길 준비를 하면 될 듯싶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새벽 2시가 되어야 책을 덮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평 : 시나리오 작가 **박 동 인**

시리도록 청명한 시월에

9월이 오곡백과 무르익는 결실의 달이었다면
10월은 시리도록 청명한 하늘을 가진 풍요로움의 달이다.

일교차 크고 안개 많은 10월

10월은 안정되고 건조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청명한 날이 많아지며 하늘은 더욱 더 높아진다. 평균 강수량은 약 60㎜로 매우 건조한 날이 많고, 기온은 9~20℃로 기온 하강 폭이 점차 커져 아침 · 저녁으로는 쌀쌀함마저 느껴진다. 특히 하순경부터는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 남부 일부 지방을 제외한 전국에서 첫서리, 첫얼음이 관측된다.

10월에는 일교차가 크고 대기는 안정해지면서 아침에 안개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생성되는 해무는 지속시간이 길고 가끔은 2~3일 동안 이어지면서 항공작전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대기가 지극히 안정되면서 대기오염입자와 안개가 합쳐진 농무(濃霧)로 인해 공중시정이 극히 불량한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이 종종 야간까지 지속되면서 공중충돌 및 비행착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한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비행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10월은 청명한 날씨에 기온도 선선하여 야외활동하기에 적합한 시기이므로 각종 안전사고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국화꽃 향기 속에 가을은 깊어가고

절기로는 국화 향기가 그윽하고 찬이슬이 맺힌다는 한로(寒露)가 8일이며, 찬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이 23일이다.

시월이라 가을이니 한로, 상강 절기로다.
제비는 돌아가고, 떼 기러기 언제 왔노.
벽공에 우는 소리 찬이슬 재촉한다.
온 산의 단풍잎은 연지로 물들이고,
울 밑의 노란 국화 가을빛을 자랑한다.

10월은 붉게 물든 단풍잎과 국화꽃 향기가 코에 아른거리는 계절이다.

깊어 가는 가을만큼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가 아쉬워진다.

풍요의 달 시월. 계획했던 일들에 대해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면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 해 후회 없는 2004년을 만들어야 하겠다.

제73기상전대 중령 **염 영 경**

독자의 소리

『그림이야기 - 잠수복과 나비』를 가장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번 공군지도 지루하지 않고 짜임새 있는 글이 많아 읽기에 좋습니다. 다음 호에도 더욱 좋은 기사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2동 이 한

『화제의 공군인 - 부끄럽지 않은 손가락 '장호수 병장'』의 기사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병역이 면제되는 데도 굳이 자원하여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기사가 되긴 하겠지만…. 대단하고 존경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널리 알려 본받을 수 있게 해야겠죠.

대구시 달서구 두류2동 정희정

늘 느끼는 거지만 『법률상식』 코너가 정말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쪽 방면에 전혀 문외한인 저로서는 매번 신기할 뿐이네요. 다음 호에도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광주시 서구 광천동 김대은

국군방송이 창설 50주년을 맞이했다는 소식과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변모했다니 놀라웠습니다. 쭈~욱 군인들과 국민 속으로 친근

하게 다가서는 방송으로 더욱 발전했으면 합니다.

울산시 남구 옥동 김귀희

이병 때부터 모아온 10권 남짓한 월간 『공군』을 보며 세월의 빠름을 느낍니다. 늘 함께 해준 월간 『공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부탁드릴게요.^^

충북 청원군 내수읍 조유탁

매달 『건강 365』를 잘 보며 참고 중입니다. 치질, 내성발톱 등 군 생활 중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유익한 정보에 많은 감사드립니다.

경남 마산시 합성1동 박경근

『법률상식 - 손해배상』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분쟁이 많아지고 소송이 끊이지 않는데 손해배상에 관한 상식을 자세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손배소송 이전에 서로간에 오해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대구시 북구 복현2동 이동화

『9월에 가 볼 만한 문화행사』 중 샤갈展을 흥미롭게 봤습니다. 다음 휴가 때 갈 생각이었거든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북 군산시 옥서면 문종훈

항상 새롭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잘 접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도 더 좋은 소식과 내용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길2동 김영진

『건강 365 - 유행성 각결막염과 아폴로 눈병』에 대한 글을 가장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몇 년 전에 직접 겪었던 눈병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에게도 알려주어 꼭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경남 김해시 장유면 오정원

우 편 엽 서

우편요금
수취인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6.1~2006.5.31
제501군사우체국
제 1 호

보내는 사람

□□□-□□□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공군

3 2 1 - 9 2 9

장병 독자 엽서

보내는 사람

□□□-□□□

공군체송망을
이용해 주세요

수 신 : 참모총장
참 조 : 정훈공보실장(문홍과장)
발 신 :

공군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

효) 6231~7, 02) 506-6231~7

2004. 10

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다른 그림 찾기 정답(5군데)

- 문제는 61쪽에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다른 그림 찾기 정답(5군데)

- 문제는 61쪽에

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2004. 10

Republic of Korea Air Force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다른 그림 찾기

▶ 이번호 문제

• 사진설명 : 2004 Air & Space Power Day 행사에 전시된 미 공군 A-10 공격기

▶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 보세요.

▶ 지난호 정답

▶ 지난호 당첨자

- 경남 진주시 망경동 장혜영
- 서울시 강동구 길2동 김영진
- 경남 김해시 장유면 오정원
- 광주시 서구 광천동 김대은
- 경남 마산시 합성1동 박경근
- 충북 청원군 내수읍 정용석
- 충남 계룡시 남선면 송용욱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2동 이한
- 전남 여수시 선원동 남창우
- 충남 계룡시 남선면 차형환

「공군」 독자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지난호에도 많은 엽서가 도착했습니다.
바쁜 일과 중에서도 엽서를 보내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내실 곳 : 우편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공군」 담당자
마 감 일 : 10월 20일까지

잔머리 장단에 춤추는 범고래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안 정 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얼마전 일이다. 방안이 너무 어지럽혀져 있어 방정리를 좀 했다. 와이프가 돌아와서 보더니 입이 귀에 걸리며 좋아한다. "당신은 뭐든지 했다 하면 확실하게 하더라…" 등등. 칭찬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무지하게 겸연쩍었지만 기분은 과히 나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문득 켄 블랜차드가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 내용이 떠올랐다. 저자는 플로리다의 수족관에서 3톤이 넘는 범고래가 멋진 쇼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놀라 조련사에게 비결을 물었다. 비결은 "긍정적 관심과 칭찬, 그리고 격려"였다. 아무튼 나도 고래 반응(Whale Done response)식 칭찬의 위력을 실감했다.

아내의 새 전략, 어리버리한 척 하며 잔머리 쓰기

와이프가 최근 들어 "칭찬으로 길들이기"와 함께 자주 써먹는 방법이 "어리버리한 척하며 잔머리 쓰기"인 것 같다.

일요일이 되면 와이프가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 "이제 밥해야지!"하는 말이다. '아니 밥이야 당연히 하는 건데 광고하고 밥하는 이유가 뭘까?' 대충 말뜻을 알아채고 하루는 외식하자고 데리고 나가서 칼국수 집에서 점심을 먹는데 무지하게 맛있다며 너무 좋아했다. 남이 보면 마치 결혼해서 처음 외식하는 걸로 오해할 정도로 오바한다.

그 이후로 쉬는 날이면 대부분 외식을 한다. 메뉴는 물론 비빔밥, 순두부, 막국수 등 수수한 것들이지만 행복은 천 배인 것 같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와이프는 나랑 외출을 하면 어리버리한 모습을 보인다. 어리버리야말로 편안함의 지름길임을 이 여자는 꿰뚫고 있다. 반면에 애들하고 와이프만 외출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애들은 엄마 땜에 성가셔 죽겠다고 투덜댄다.

안 봐도 뻔하다. 이건 분명한 이중 플레이다.

최근들어 IQ(지능지수)보다는 EQ(감성지수)나 MQ(도덕성 지수)가 중시되고 있다.

여기에 추가하여 PQ(열성지수)와 DQ(디지털 지수), 그리고 GQ(글로벌 지수)까지 따진다. 그런데 6Q 외에 JQ(잔머리 지수)까지 따져야 하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어쩌겠는가?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잔머리에 넘어가 주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앞으로도 꿍시렁 거리지 말고 기꺼이 잔머리 장단에 춤추는 범고래가 되어야 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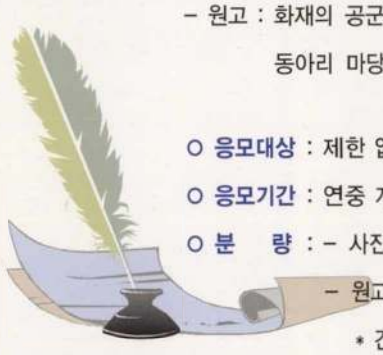
알립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공군인들의 종합교양지 월간 「공군」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들의 수기나 문예작, 사진작품, 기타 일상생활에서 느낀 진솔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 **모집분야** : – 사진 : 앞뒷면 표지, 공군은 지금
– 원고 : 화재의 공군인, 부대/부서탐방, 테마가 있는 나들이(기행문), 동아리 마당, 장병문예(시 · 소설 · 수필), 독자마당 등



○ **응모대상** : 제한 없음. **※ 공군가족 및 예비역 원고 환영**

○ **응모기간** : 연중 계속

○ **분 량** : – 사진 : 4×6 이상 혹은 디지털이미지(JPG : 500Kb 이상)
– 원고 : 원고지 10매 내외(A4용지 1.5 ~ 2매), 관련 이미지
* 간단한 약력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명기

보 낼 곳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310 문화홍보과 「공군」 담당(우편번호 321-929)

E-mail : (인터넷) afzine@airforce.mil.kr, (인트라넷) ksh0450@af.mil

문 의 02)506-6233, 효)6233

주요 행사

- **특별초청 포럼**

  "한국형 전투기 개발 및 관련 핵심기술 확보 방안"

- **항공무기체계 개발 기술논문 발표**
  - 체계종합/시험평가
  - 비행체 기술
  - 항공전자/비행제어
  - 우주/방호무기

일 자 : 2004년 10월 29일(금)
장 소 : 국방과학연구소(대전)
주 최 : 공군 전투발전단/국방과학연구소
후 원 : 사단법인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문의 : TEL. 042) 551-5823
920-5821,5823
E-mail. hq93@airforce.mil.kr

공군 전투발전단

국방과학연구소